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3호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그대여, 성북동 입세의
버즘나무가 물들기 전에 오세요.

길 복판 감나무에 감이 익을 때 오시면
그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간송 미술관 가는 길
일렬횡대 은행나무 노란 잎이 눈길을 끌면

그대 어쩌면
걸어온 시간 저 아득한 너머로
되돌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대 문득 깨어나면 그때는 이미
함박눈 퍼부어 성북동 골짜기 온통 눈부시고,
매화꽃 복숭아꽃잎 냇물에 떠가고,
성곽 마을 사람들처럼 잎 그늘에 숨어
잠드는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성북동 그 잎들 다시 물들기 전까지
당신은 영영 떠나지 못하리니

그대여, 성북동 입세의 버즘나무 물들기 전에
어서 오세요.

표지 글씨는 성북구 평생 학습관 수련생인 박중순·전현숙님께서 쓰신 글을 집자하였습니다. / 이 책은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차례

1p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5p 북촌에서 성북동으로 한양도성을 월담하다!
권두 칼럼, 북촌의 아침 창가에서 / 하도겸

기억

10p 명랑 이발소
시와 그림으로 보는 성북동 풍경 / 박미산 시, 김철우 그림

12p 내가 살아온 성북동의 기억
문재환씨가 살아온 길 / 박진하 정리

자취 - 성북동의 문화재

23p 혜곡 최순우와 최순우 옛집 이야기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32p 최순우 옛집을 답사하다
박진하

41p 한국의 미를 찾아 살아온 최순우선생의 일생<만화>
최진형 글, 안시은 그림

사는 이야기

49p 성북동91번지의원
성북동, 이곳 / 최명은

54p 기억 속의 작은 공간, 네팔 사진관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최성수

63p 성북동에서 일구어가는 다문화의 꿈
인터뷰, 가티히라 사토미 다문화 교사 / 오예주 정리

66p 17717에서 열린 박미례 개인전 <괴작 怪作>
한장 스케치

68p 나와 성북동, 그리고 갤러리 오뉴월의 ‘祝 發展’
성북동 향수 / 최윤석

홍익중고등학교 주변, 재개발 3구역 마을
특집, 골목 이야기 2

80p 가다가 돌아보면 걸어온 골목이 더 고운 마을
골목 탐방기 / 장영철

88p 도심에서 고향을 꿈꾸는 사람
인터뷰, 성북동 3구역 주민 장덕수씨 / 편집부

성북동천 이야기

94p 성북동 사람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2호> 리뷰 / 서순정

98p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
젊은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 교실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권두 칼럼 / 북동의 아침 창가에서

북촌에서 성북동으로 한양도성을 월담하다!

하도겸

안암동 호랑이와 14년을 호형호제하다 성북구를 떠난 지 10여년 만에 얼마전 종로구 사간동을 등지고 여기 성북동으로 이사 왔다. 치솟아 오르는 집세와 주말이면 그냥 유명하다니까 유행처럼 북적이는 박제된 관광객들로 ‘북촌’을 사랑했던 주민들은 하나둘씩 터전을 등진다. 티베트 라사를 점령한 중국 한족처럼 이제 북촌은 마을 토박이나 지킴이가 아닌 재벌이나 대기업과 같이 돈많은 뜨내기들이 잠시 머무는 임시가건물 같은 ‘공간’이 되고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아름다움과 멋 그리고 맛까지 보여준 한옥과 골목길. 그리고 오래된 식당에 담긴 정겨운 북촌의 정서가 그동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찾아가 본 북촌은 서서히 그 매력을 잃고 있었다. 많이 형해화된 거리에는 석양에 길게 늘어진 대기업의 빵집 간판 그림자가 우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떠나갔거나 돈에 들뜨거나 아니면 ‘사람’ 공해로 고통받고 있었다. 슬프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옹거 살 집구하러 땀 뻘뻘 흘리며 아픈 무릎을 감싸고 북악산에 올라와 도심을 내려다본다. 무학대사와 함께 도성을 정하고 한성부윤을 역임했던 진산부원군 ‘하륜’(河崙 : 1347~1416, 우리 진양·진주하가

의 중시조 어른)은 후손과는 달리 연대 쪽을 좋아했다. 어른 만큼 풍수는 모르지만, 산세가 공부 잘 하는 학자가 나오기 적당한 곳은 이쪽이다. 그렇기에 성균관이 들어왔을 것이다. 지구가 커지고 우주가 팽창하듯 인구가 늘어난 서울 도시의 기운도 그렇게 성장하나보다. 한양도성에 고여 있던 문예 기운의 중심이 서울 도심의 확장에 따라 점차 궁이 있는 종로에서 고대가 있는 성북으로 그리고 연대가 있는 서대문으로 넘쳐 나간다. 도시가 사람과 같이 성장한다. 도시도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선비가 닦은 시서예약을 우리는 문예라고도 했다. 문예에 여러 뜻이 있었지만 역시 학문과 예술의 뜻이 으뜸일 것이다. 성안의 서울국제고, 서울과학고, 경신중고, 혜화초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동성중고에 그런 맥이 흐르다 멈추다 잠기다 다시 솟는 모습이 보인다. 성 밖으로는 성북초등학교, 홍대사대부속중고,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삼선중학교, 경동고등학교, 한성대학교, 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 창신초등학교로 성벽을 넘은 문예의 기운이 계속해서 응집되고 있다.

풍문에 의하면 전국 연극인의 60%가 성북동 부근에 상주하고 있을 만큼 성북동은 예술가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얼마전 ‘심우’를 창작한 극단 ‘더늌’ 역시 성북에 연고를 두고 10년 넘게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성북동이 서울의 학문과 예술 즉 문예의 가장 큰 마당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한옥 많은 언덕배기가 좋아 북악산에서 멀리 내려가고 싶진 않다. 창덕궁과 성균관을 뒤로한 북악산 ‘말바위’아래로부터 와룡공원으로 내려와 한양도성 성벽을 뒀다. 산을 타고 내려온 성벽이 끝난 지점에

돈가스 사먹으러 몇 번 와 본 기억밖에 없는 성북동이 있다. 거기서 가장 존경하는 ‘님의 침묵’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심우장과 조우했다. 풍수는 잘 몰라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를 대표하여 3.1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선생을 마음에 새긴 바 있다. 아 여기다. 예문의 기운이 있고 독립운동가의 뜻이 있는 여기서 꼭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난다.

돈가스 골목으로 성벽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경신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이 보인다. 담 밖에서 바라보니 운동장과 학교건물 그 뒤에 북악산이 보인다. 운동장이 없었으면 답답했을 이곳에 호수처럼 커다란 마당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다. 수렴되지 않은 기운이 길가에 줄 서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들에 머문다. 일부는 성북동 주민센터로 흘러간다. 아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지신’께 간절하게 빌고 발길을 돌린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얼마 후 도반의 소개를 받아 분에 넘치게도 행운을 얻어 여기 성북동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그리고 수년간 네팔 현지 봉사단 활동을 했던 NGO 나마스페코리아를 부르게 되었다. 후암동에 있던 주한네팔 대사관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몇 해 전 이사하고 있었다.

북악산에 내린 비는 땅으로 젖어들어 흙에서 뿌리로 그렇게 스미어 나무를 성장시킨다. 많은 비가 내리면 나무도 결국 물을 다 못가지고 있어서 몸 밖으로 물을 내보낸다. 그런 물들이 모여서 실개천을 이루고 계곡을 지나 작은 천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성북천도 생기고 그 북개천이 한강으로 흘러 황해 바다로 나간다. 북악산의 나무들과 샘물 그리고 지하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 각각으로는 성북천도 한강도 되지 못한다. 바다로 가는 길도 험난할 따름이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샘물과 비, 지하수들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모이고 또 모여서

다정하게 오순도순 흘러갔기에 성북천은 한강이 되고 서해가 된다.

성북구에 14년을 살았으니 뜨내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토박이도 아니다. 모두가 사연을 가지고 성북동을 찾고 성북동을 등진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한다. 내게 다가온 사람은 총알처럼 스치듯이 빨리도 지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인연으로 떠나갔던 그 자리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그렇게 만난 사람은 결국 또 반드시 헤어진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더 잘해주고 싶다. 하지만 다시 못 만날 수 있다.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잘해주고 마음껏 사랑하는 건 어떨까? 길상사에 주석했던 범정스님의 ‘일기일회’가 그 뜻일 것이다. 살아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지금 성북동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들 모두가 우리 성북동 사람들이다. 우리는 잠시 떨어져 살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여기에 있다면 떠나간 사람들도 성북동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람이 가고 환경이 변해도 성북동은 언제나 여길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북동을 생판 모르는 부산사람과 성북동에 살았던 아니 성북동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성북동’은 같은 거리에 있을까? KTX를 타고 지하철 4호선을 타야 갈 수 있는 성북동. 하지만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숨에 마음에 나래를 펴고 찾아갈 수 있다. 그게 마음이다. 성북동을 사랑한 이들은 어디에 가도 우린 성북동 사람인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땅이 나를 살게 해준 것이다. 성북동의 은혜를 입었기에 난 성북동을 사랑한다.

성북동을 사랑하는 이는 어디에 살든 모두 성북동 사람들이다. 채석장이 있었던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위 먼지 덮인 하늘을 휘돌던 비둘기도 그렇게 성북동을 사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1960년대 성북동

168번지 34호에 2층 양옥을 지어 입주한 김광섭시인은 함경북도 경성 출신이었다. 이사 온 지 10년도 채 안돼 병마로 미아동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는 네 번째 시집인 『성북동 비둘기』에 그의 성북동 사랑을 남겼다.

북촌에서 성북동으로 한양도성을 용감무쌍하게 월담했다. 난 조선시대 한양도성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시민이다. 성북동을 잘 모르지만, 난 지금 성북동에 살고 있고 난 성북동과 사랑에 빠졌다. 해외에 나가면 나를 보고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성북동 밖 사람에게서 난 성북동을 대표하기도 한다. 내가 곧 성북동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성북동에 사는 당신과 가족 그런 마을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성북동이기도 하다. 당신은 지금 성북동과 사랑에 빠져 있나요? Are you falling in love with SBdong? 

하도검은 3류 글쟁이로 뉴시스를 통해 ‘나를 보는 3분’ ‘히말라야 이야기’ 등의 글을,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등에도 가끔 이야기를 싣는 그냥 그런 칼럼니스트다. 매주 백상정사 명상모임을 지도하는 법사이지만 부처님을 안 믿는 좀 많이 이상한 불교 신자다. 불교개혁에 앞장서는 ‘불교닷컴’의 논설위원으로 일반인은 봐도 전혀 모르는 ‘백일법문’ 등도 쓰고 있다. 2007년부터는 NGO 나마스페코리아 네팔현지봉사단장으로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썼다가 지우다 다시 또 새기고 있다. ‘삶이 수행이고 헛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지행합일을 꿈꾼다’고 떠드는 바보다. 다만 이런 소개로 하도검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천재고 성인이라는데 동의한다.



시와 그림으로 보는 성북동 풍경

명랑 이발소

박미산 시, 김철우 그림

성북동에는요 아주 오래된 이발소가 있어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돼지가 있고요 기도하는 소녀도 있어요 그리고 의자 팔걸이에 얹혀진 빨래판이 있고요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어요 이발사는 내 목에 흰 천을 두르고 머리를 깎고 있어요 나는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요 나

의 긴 머리카락은 어느새 시멘트 바닥을 뒤덮고 상고머리 낫선 아이가 거울에서 나를 뻔히 바라보고 있어요 우왕, 우는 아이를 번쩍 안고 빨랫비누로 머리를 감겨주던 여자 이발사, 물조리를 밀치며 도망친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 구름을 뚫고 자랐어요

50년 동안 문 닫은 적 없는 명랑이발소, 잘린 머리카락들이 이발소에서 영영 나오지 못하고 내 귀를 자를 것만 같은 시퍼런 가위도 도망치지 못했네요 머리카락을 제 맘대로 자르던 아가씨는 오늘도 여전히 면도칼을 가죽에 문지르고 거품도 만듭니다 구름을 만들어내고 어제와 내일도 만들어요 어제의 나를 번쩍 꺼내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할머니 이발사 이빨 빠진 바리칸이 빛나고 있어요 이제 겨우 자란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달려드네요, 속절없이 머리카락이 후두둑 떨어지는

-

박미산은 2006년 『유심』, 2008년 『세계일보』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 『태양의 혀』(서정시학, 2014)을 냈다. 성북동에 살고 있으며, 성북동을 소재로 시를 쓰는 등 지역의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다.

김철우는 화가이며 '성북동천' 대표이다. 지난 10월 여행 수채화 '길 위에서 그리다' 전시회를 열기도 했으며,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마을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공간이기를 꿈꾸는 사람이다.

내가 살아온 성북동의 기억

박진하 정리

2007년쯤 중국 항주로 출장을 떠난 적이 있었다. 해외출장을 가면 낮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가곤 했다. 새벽 5시에 나와 서호로 나가보니 이진 별천지다. 전 시민이 다 나온 듯하다. 한편에서는 단체로 모여 조깅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체조를 한다. 조금 지나다 보니 웅기중기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때론 박수도 치고 함박웃음을 터트린다. 이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중국의 앞날은 창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파고다 공원을 지나다 보면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노인들이 볼 수 있다. 이런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노라면 중국의 건강한 아침 풍경과 겹쳐 보인다. 노령사회로 전환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건강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우리도 중국처럼 노인 분들이 건강하게 아침 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계신다. 문재환 어르신이 그런 분이다. 1947년생이면 만 67세이다. 그런데 지금도 조기 축구를 좋아한다. 여전히 활기차게 직장생활도 한다. 다 은퇴한 시기에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번은 우리에게 다가와 '성북동에서 무엇을 하려면 날 먼저 찾아와 야지요.'라며 인사를 청한다. 성품도 팔팔하시다. 당초 인터뷰 질문



맨 왼쪽이 문재환씨다.

지를 가지고 하나씩 정리하려고 했던 시도는 시작부터 무너지고 말았다. 질문에 관계 없이 주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며 청산유수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인터뷰 형식이 아니라 취재로 형식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축구를 사랑한 전라도 소년의 질풍노도

그는 김제에서 태어났다. 소년기에는 만경강 교각 밑을 놀이터 삼아 놀았다. 당시 유행하던 통기타를 가지고 노래하며 밤을 지새기도 했다. 짓궂게 장난을 치던 개구쟁이 소년들이었다. 건너 마을 옥구에서 물을 길러 오는 젊은 새댁들을 희롱하다가 마을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축구라는 스포츠를 만나게 된다. 그저 좋았

단다. 그런 와중에 서울 중앙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 아현동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다 깡패 선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도둑질을 시키기도 했단다. 결국에서 다시 낙향하여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를 전전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주공업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 당시 그 학교에는 축구부가 신설되어 있어 좋아하는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문제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3학년인 18세에 교복을 입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게 된다.

기갑병 일반하사로 제대한 그는 수산 전문대를 가게 되었다. 당시에는 이런 일도 가능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도로스가 되기 위해 들어간 학교였지만 졸업 6개월 전에 시작되는 학과 심화코스로 운전을 선택했다. 전주 BBS 육영재단에서 4개월 만에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외국계 회사(웨스팅하우스)에 취업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하려 하였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은 삼보 컴퓨터에 지원서를 접수하려고 갔다. 당시 최고였던 그 회사는 원서 접수마저 거부하는 것이었다. 전라도 출신에, 해병대를 다녀온 것이 문제란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운전이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한정 걷다 보니 서울 끝 지점까지 가게 되었다. 당시 청량리는 서울의 마지막 종착지이다. 그곳에 경동시장이 있었다. 주요도로도 2차선까지만 포장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비포장 상태였다.

그 시장에는 지방에서 물건을 싣고 경동시장으로 운송 해 주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를 고용할 상인은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상점까지 왔을 때 그 주인이 내일 와서 운전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날 춘천으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은 물론 지도도 없었다. 트럭은 바퀴가 3개인 삼륜차였다. 마석 고개를 지나 곧장 가면 된다는 말만 듣고 갔다. 군대시절에 늘 생활화하던 그 신념 즉 ‘안 되면 되게 하라.’ 와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정신자세로 운전을 했다. 드디어 춘천에 도착하여 옥수수를 싣고 왔다. 그랬더니 땀뽕 기사 자격을 얻게 되었다.

당시 선배들에게 예우를 다 했더니 다들 예뻐해 주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토박이 주먹들이 시장 주차 안내원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횡포가 대단했다. 이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트럭이 새벽에 도착하면 좁은 골목을 잘 빠져 나갈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물론 나갈 때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했다.

이들이 같은 시장에서 주로 머물던 기사에게도 수수료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들과 싸움이 나서 머리를 쇠파이프로 맞아 심여 바늘을 꿰매기도 했다. 날카로운 쇠스랑과 작살을 가지고 나오면 정말 무서웠다. 그 때 이빨도 다쳤다.

당시 하월곡동에 살고 있을 시기인데 친지가 미 8군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에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운전기사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그건 원자력 건설과 관련된 일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기던 주요한 일이었다.

정부는 한국교포로서 이 분야에 정통한 인재가 필요했다. 그 사람은 웨스팅하우스의 J. J. KIM 이었다. 고려대를 2년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한국인이었다. 대학 다니면서 명동 신 상사 파에 소속해 있을 만큼 건장한 사람이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근무하던 그를

웨스팅하우스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먼저 일본 서해 쪽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게 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서 찾던 최고의 책임자이었다. 그리고 그를 모시는 기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은 최고의 직장이었다.

1일 8시간 일하고 급여는 당시 공무원이 월 3만8천원인데 비하여 13만원이었다. 다들 업무시간이 그의 2배나 되었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던 시기였다.

드디어 성북동으로서의 이주와 즐거움

한국계 회장이 본국으로 가면서 그 후임으로 멕시코계 책임자가 왔다. 그는 지금 길상사가 된 대원각 밑에서 살았다. 그래서 회사에서 전세금과 이사 보조금을 주어 그것으로 성북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른바 성북동에서 제2의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 신한은행 지점 인근에 있던 콩나물 공장 옆 골목으로 들어가 이층 방 두 칸을 전세로 얻어 입주했다.

당시 성북천이 무척 아름다웠다. 물줄기는 양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가 합쳐져 흘러내려 갔다. 그 하나는 지금의 마을버스 종점에서 내려 오고 다른 하나는 길상사 쪽에 흘러 내려와 합쳐지는 것이다. 쌍 다리가 있는 그 근처에는 빨래터가 있었다. 뽕의 바다라고 지칭할 만큼 뽕도 많았다. 정말 매력적인 마을이었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 좋았다.

뽕의 바다와 성북동 마님들의 이야기

야쿠르트 회장과 동원 참치 회장 등이 뽕의 바다 인근에 살았다. 가끔은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참치를 가지고 와서 파티를 하곤 했다. 일본 참치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커다란 참치가 원형 그대로 들어 왔

다. 좋은 부위는 회장 가족에게 드리고 남은 부위로 잔치 상을 만들어 즐기기도 했다.

때론 그물로 뽕을 포획해서 매운탕으로 끓여 먹었는데 맛이 최고였다. 뽕이 좋아하는 쿡을 뿌려두면 뽕이 날라 온다. 그것을 그물로 덮쳐서 잡는 것이다. 뽕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뽕 요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유명 해외 로비스트도 여기에 있었고 공화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러 정계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런 사람을 만나려 외부에서 많은 사람 오가는 지역이 성북동이다. 그들은 좋은 물건이 있으면 돈을 관계치 아니하고 산다. 신선한 고기만을 구입해 팔던 정육점은 돈을 많이 벌어 조그마한 빌딩을 사기도 했다.

또 세탁소도 잘 되었다. 여기에서 신용을 얻게 되면 시내에 빌딩을 가진 부자들이 자기 건물의 커튼과 카펫까지도 세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픔이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저택의 주인도 바뀐다. 그래서 열쇠 장사가 잘 되었다.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모든 자물통을 바꾼다. 여기에 각국 대사관저에 있는 외국인도 큰 몫을 한다. 이들도 새로 부임하면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과일장사도 큰돈을 벌었다. 부자 동네 주민 외에 주변 종교 단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사찰이나 암자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신자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기사 식당들이 많았다. 커다란 대사관에서 파티를 하면 차량이 150대 가량 모인다. 그리고 대원각이나 삼청각도 있었다. 당시는 자가 운전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수행하는 전담 기사들도 같이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이 이용하던 식당들이 기사식당이었던 것이다.



또 다른 성북동의 아픈 추억들

마을버스 종점이 당시에는 지금 신한은행이 있는 그 장소에 있었다. 그리고 삼청터널이 있긴 했으나 통행이 제한되어 있어 이른바 한적한 시골 같은 분위기이었다. 또 일반 차량도 성북 천이 복개되기 전까지는 서울 과학고와 경신고 앞에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여 혜화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주먹을 휘두르며 텃세를 행세하던 젊은 친구들도 있었다. 이들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던 아지트가 쌍 다리 부근에 있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성북 초등학교와 홍익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시절이 대단히 열악했다. 심지어는 강남에서 성북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여자 교장이 있었는데 그녀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를 가리켜 이런 똥통학교는 처음 봤다고 할 만큼 형편 없었다.

조기 축구회 결성과 아름다운 추억들

내년이면 동호회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되니까 1975년에 결성되었나 보다. 그 다음 해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이 모임에 가입하려면 일 년치 회비를 선납하고 들어와야 했던 시기였다. 그 열기가 대단했다. 주말에 축구를 하려고 금요일부터 술도 적게 마시고 부인과의 잠자리도 삼가 할 정도였다. 다들 축구를 하러 나올 땐 삶은 계란 3판과 보리차를 끓여 큰 통에 담아 나온다. 그러면 식당에 갈 필요도 없이 운동장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송년회 때는 부인들이 다 같이 나와서 끓이고 준비하였는데 이른바 큰 잔치 마당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 동호회 뿐만 아니라 다른 축구 모임도 많았다. 전체적으로 6개 팀이 있었는데 년에 한 두 번은 다 같이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삼청각과 대원각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100여명이 되었다. 이들로 구성된 팀이 하나 있었다. 또 우리 마을에 거주하는 대사관저가 20여 곳이 있는데 이곳에 파견 나가 있던 전투경찰만 해도 120여명이나 된다. 이들 경찰 팀 외에 우리처럼 동호회를 만들어 운영하던 조기 축구회도 A, B팀 두 개나 있었다. 그리고 21통장들이 모여 만든 통친회 팀과 지금의 신한 은행이 되기 전 조흥은행 직원으로 결성된 팀이 있었다.

나의 작은 소망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 좋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 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축구 동호회 후배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후원할 수 있다. 젊었을 때 어떤 나이든 선배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동호회 축구팀이 운동하는 운동장 주위를 돌며 나무를 툭툭 치며 인사를 하는 장면이 보았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운동장 주변에 있는 나무를 어루만지며 인사를 한다.

이처럼 한 운동장에서 대략 40년간 조기 축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전통을 지키며 동호회원들과 함께 건강한 성북 마을을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일도 하고 운동도 할 계획이다. 

박진하는 명사가이며 본지 편집위원이고, 현재 성북동에서 식당 '디미방'을 운영하고 있다. 요가와 명상에 관한 책을 두 권 내기도 했으며,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다. 이 답사기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딸과 함께 최순우 옛집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성북동의 문화재

혜곡 최순우와 최순우 옛집 이야기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운치의 멋이요,
하나는 그 속에 몸을 담고 느끼는 즐거움이 그것이다.”

- 최순우, 「날날으로 본 한국미」 중 -





‘집은 주인을 닮는다’는 말이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집은 유교 사상을 담고, 가풍(家風)을 보이는 그릇이었다. 사람들은 존경하는 인물이나 명사들의 자취를 찾아 그들이 살던 곳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만남을 갖는다. 최순우 선생의 집은 우리나라 첫 시민문화유산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제268호)이라는 의미가 깃든 집이다. 1930년대 초 지어진 한옥은 최순우 선생이 1976년부터 1984년 작고할 때까지 살던 근대한옥이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의 저자로 유명한 최순우 선생은 1916년 개성에서 태어나 개성시립박물관 관장이던 고유섭 선생을 만나 한국 미술사 연구에 뜻을 두며 평생 박물관인으로 살았다. 개성에서 서울로 와 간송 전형필 선생과 인연을 맺은 뒤 한국전쟁 때 북한군의 소장품 이송작전을 지연시켜 간송 소장품을 지켜냈고, 간송 선생과 교류하며 우리 문화를 보는 안목을 키웠다. 간송은 자신의 아들 돌림자인 ‘우(雨)’를 붙여 ‘순우’(본명은 희순熙淳)라는 이름과 ‘혜곡(兮谷)’이라는 호를 지어줄 정도로 각별하였다.

“6.25때 북단장 아래로 옮기셨죠. 북쪽에서 온 당원으로 ‘기’란 사람과 서예가 일관이란 사람이 와서 간송 소장품을 안전한 데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래 손재형씨와 제가 지연작전을 세웠습니다. 우선 선별 기준에서 좋은 것은 나쁘다, 나쁜 것은 좋다고 하고 물건을 하나 가져다가 풀었다간 아니라고 싸고 또 목록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하였습니다. 포장이 진행되면서 상자를 사 오라 하는 등 목수가 없다는 등으로 지연을 펴고 소전은 생다리에 붕대를 매고 출고를 늦추고 9.28 때까지 완전히 포장되어서 상자에 싸여진 것은 하나도 없었죠. 그때 보화각(현 간송미술관) 지하실에 화이트호스 위스키가 께짝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기’한테 날마다 자꾸 권했죠. 술이 취하면 우리가 사보

타지 하기 쉬웠지요. 그리고 그 속에 일본 판화로 된 좋은 춘화가 있었는데, ‘기’는 그것을 보고 좋다고 흥얼대면서 우리가 눈속이는 것을 모르고 매일같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소전 선생과 나는 참 위기일탈로 살아남았어요. 북쪽 책임자 일관이란 사람이 9.28이 다가오자 우리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할 때는 아찔했습니다. 그 날 그들이 모두 서울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출처: 「간송의 생애와 예술-서거 11주기를 맞으며」, 『간송 전형필』, 보성중고등학교, 1966, 371쪽

최순우 선생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 각지와 미국, 일본에서 열린 ‘한국미술2천년전’, ‘한국미술5천년전’을 주관하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고, 박물관의 조사·연구·전시·문화재 보존 등 분야에서 박물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한편으로 전통 공예를 잇는 장인들을 지원하고, 현대미술작가와 교류하며 문화계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성북동 집에는 손수 심은 나무와 석물(石物), 단정하게 놓인 목가구와 백자 등 최순우 선생의 안목이 곳곳에 깃들여 있다. 선생이 쓰던 사랑방에는 달항아리를 아끼는 마음이 통한 수화 김환기와 한국인의 심성을 담아 그림을 그린 박수근이 선물한 작품이 걸려있었다.

‘문을 닫으면 이곳이 바로 깊은 산중이다’라는 뜻으로 최순우 선생이 이사온 해 직접 써서 걸었다.

성북동 작은 골목 안쪽에 있는 최순우 선생의 집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이 모여 보전되었다.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유족과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펼치던 시민단체가 인연이



◀ 사랑방에 걸린 ‘두문즉시심산(杜門即是深山)’ 현판

달아 2002년 시민 성금으로 매입, 복원·보수 후 2004년부터 일반에 개방되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나 기부·증여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산을 확보하여 시민 주도로 영구히 보전·관리하는 시민운동이다. 영국에서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빠르게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부터 같은 방식의 운동이 나타났다.

최순우 옛집 보전과 함께 설립된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서는 2006년 전라남도 나주의 풍산 홍씨 집성촌에 있는 ‘도래마을 옛집’을 매입하고, 이어 성북구 동선동 조각가 권진규 선생이 직접 짓고 생활한 ‘권진규 아틀리에’(등록문화재 제134호)를 유족에게 기증받아 보전하게 되었다. 시민문화유산에서는 전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후원회원과 자원 활동을 통해 보전·운영하고 있다.

역사문화인물이 살던 집이나 활동한 공간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예술작품이 탄생한 곳이며 당대 인사들이 교류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각 시대의 건축양식과 함께 개인의 개성까지 볼 수 있는 건축적인 가치를 갖는다.

근대문화유산은 2001년 신설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국가에 등록되고 있지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지, 부동산이나 지역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인식이 달라져 근대문화유산을 지방자치단체나 문화기관들에서 보전·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큰길을 비껴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우연히 만나는 집이 누군가의



시민문화유산 2호, 나주 도래마을 옛집



시민문화유산 3호, 권진규 아틀리에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보물찾기를 하듯 마음이 설레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다채롭게 다가올 것이다. 가까운 과거이자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담긴 근대문화유산은 우리가 발견하고 의미를 찾고 보전해 나가야 할 미래유산이다.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문화유산과 관련된 문화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활동을 위하여 2004년 4월 23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법인 소재지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26-20 최순우 옛집 이다. 재단에서는 문화유산보전을 인식확산을 위한 대국민 모금 사업, 미지정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프로그램 마련, 문화유산 보존·활용 증대를 위한 정책 연구사업 등을 하고 있다.

[관람정보]

최순우 옛집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5길 9, 02-3675-3401~2

개관: 4~11월, 화~토요일, 10~16시

휴관: 일·월요일, 추석 당일, 12~3월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71 신한은행 2층 // 02-3675-3401~2

<http://nt-heritage.org>

<http://cafe.naver.com/ntchfund>

<https://www.facebook.com/ntfund>

최순우 옛집을 답사하다

박진하

요즘 답사여행에 관련된 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문화재가 있는 관광지는 많은 답사 객으로 넘쳐나고 있다. 아니 문화 해설사라는 제도가 있어 해당 문화재를 소개하는 정도도 상당 수준이다. 이를 듣거나 보는 이가 전공한 사람도 아닌 일반인이다. 이만큼 문화재를 보는 눈높이를 높여준 분들을 논하려 한다면 해곡 선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저서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는 우리 문화 사랑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하나로 그는 유명인사가 되었고 우리의 수준을 한결 높였다.

존경하고 뵙고 싶은 사람이 고인이 되었다면 그를 간접적으로나마 만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생존해 있던 시기에 거처하던 생가를 방문해 보는 것이다. 특히 선생처럼 우리 문화재를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사랑하게 만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당신이 마지막까지 사셨던 가옥이 우리 성북동에 있다.

옛사람이 집을 구함에 있어 우선했던 것은 생활의 편리성이요, 땅의 기운의 성쇠를 보는 일이다. 지기(地氣)를 살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뚝 솟아난 산세의 흐름을 살피는 것이다. 산세의 흐름은 지기가 흘러간 증거라 본다. 그리고 그 산세가 물을 만나 멈춘 땅을 지기가 응축된 길지(吉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지역은 그 지기의 흐름과 멈춤이 명확하여 확인하기 쉬우나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지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냇물이나 강물의 형세를 보고 판단한다. 어느 땅이든지 물이 그 지역을 휘감고 도는 길지가 있다면 그곳이 지기가 가득한 명당이다. 대표적인 명당이 하회 마을이다. 그 마을을 중심으로 강물이 휘감아 돈다.

성북천은 크게 세 번에 걸쳐 휘감아 돌아 성북동을 빠져 나간다. 그 첫 번째가 덕수교회가 있는 땅이다. 이곳을 차지하고 큰 가옥을 건축한 사람은 이종석이라는 거부이다. 마포에서 젓갈장수로 큰돈을 벌어들여 별장을 만든 것이다. 그의 가옥은 지금도 교회 후원에 남아있다. 두 번째는 간송미술관이다. 그 미술관을 정점으로 성북천이 크게 휘감아 돌아 내려와 다시 해곡 선생의 가옥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튼다. 신한은행 주변이 이 성북천이 내어 준 세 번째 길지인 것이다. 그래 선생은 이 땅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신한은행 성북점을 끼고 돌아 들어가면 최순우 옛집이라 표지가 보인다. 다른 집보다 지대가 꽤나 높다. 골목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돌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 계단이 일곱이니 그 만큼 축대를 높인 것이다. 대문 좌우에 병치된 문간채는 “ㄴ”자 형태로 만들어져있다. 좌측 문간채는 수직으로, 우측은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어 대문 밖에서도 세 칸 넓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대문 밖에서 보면 좌측은 한 칸이 보이고 우측은 세 칸에 여유 공간을 더하고 있다.

기본적인 축대는 막돌 쌓기 방식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긴 장대석을 두었다. 그리고 그 위로 담장을 쌓았다. 밑단은 5단 높이의 사각석, 윗단은 벽돌 3단을 테두리 속에 넣어 배치했다. 또 그 위로 환기창이 보인다. 이런 구성에서 우리는 균형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축대와 담장, 환기창을 배치한 적정 비례에서는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시멘트를 이용해 축조했다는 것이다. 이 보다 더 큰 아쉬움은 여러 개의 안내표지와 이 집을 보존하는데 기여한 사람의 명단을 대문 좌우 벽면에 새긴 것이다. 그저 최순우 옛집이라는 안내판 하나면 족하지 아니할까 생각한다. 또 기여자 명단은 고아원에 찾아가 여러 큰 선물 박스를 앞에 두고 원아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기부자를 닮아 있어 씁쓸하다.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홍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올라 비교적 화려한 장식을 배제한 대문을 밀고 서면 조그마한 마당 정원이 나타난다. 소나무와 여러 화초가 심어진 뒤쪽으로 사랑방이 보인다. 대문 전면에서 선생이 거처하던 서실이 위치한 것이다. 그걸 살짝 가리는 병풍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원이다. 대문 좌우에 있는 문간채는 각각 3칸으로 되어 있으며 2칸은 칸막이를 터서 거실처럼 사용했고 한 칸은 방으로 만들어 문객이 이용하도록 했나보다. 대체로 방문은 이중문으로 되어있다. 그 안쪽은 비교적 단아한 용(用)자 살 무늬의 미닫이로 그 바깥은 흔히 한옥에서 볼 수 있는 띠살 형식의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다. 겨울 추위에 대비하여 이중으로 방문을 만들었나 보다. 거실과 방 사이에도 방문이 있어 거실에서 한담을 나누다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대문 오른 편 문간채를 지나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 문간채와 안채 사이에 일정 공간을 두어 격리했다. 작은 문인 상 한 쌍과 앵두나무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다. 이곳에 펌프를 두면 운치를 더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우물은 마당 정원에 있었다. 이 위치에서 후원에 있는 장독대를 바라보면 이 집 최고의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안채와 담장 사이에 통행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디딤돌을 두어 비 올 때 젖은 땅을 딛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에 놓인 이 돌들이 만든 직선은 이 공간을 보다 넓게 보이게 만들어 협소함에

서 오는 갑갑함을 해소시키고 있다.

그 왼쪽으로는 따님이 거처하던 건넌방과 거실의 벽면이 있으며 그 오른쪽으로는 기와를 이용한 장식 담장이 보인다. 평면 기와를 깨서 수평으로 점선을 몇 겹으로 그었다. 이처럼 너무나 단순한 장식의 담장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너머로 장독대가 보인다.

우린 곧바로 선생과 가족이 거주하던 안채로 가지 아니하고 뒤뜰로 나아갔다. 장독대를 두 단으로 만들어 그 높이를 달리해 크고 작은 장독을 배치했다. 그 뒷담은 빨간 벽돌담으로 되어 있어 웅기와 잘 어울리게 했다. 또 후원 한편으로는 돌로 만든 원형 테이블에 의자 일곱 개를 놓아 한담을 나눌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뒤 뜰 정원을 만들어 운치를 더했다. 맑은 물을 담아 두는 돌로 만든 물받이 통과 화초들이 무성하다. 그 사이로 조성된 길에는 역시 돌 디딤돌을 두어 다닐 수 있게 했다. 그 중 가장 으뜸은 문인 상이다. 전체적으로 문인 상이 3쌍이 있다. 그 가운데 선생이 가장 사랑하신 문인 상을 여기에 둔듯하다. 꼭 돌하루방을 닮아 있다. 단순한 사각형 돌을 옆만 조금 깎아 관모로 새기고 큰 귀는 홈을 깊게 한 것이 전부이다. 옷 모양은 선 3개를 그은 것으로 마무리 했다. 이것은 단순한 선 몇 개로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한 현대 추상화를 닮아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석물을 찾아 여기에 두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그 뒤 담장에는 하단 중간을 앞으로 돌출되도록 해 화초를 심었다. 텅 빈 공간보다는 담장 중간에 화초가 있고 그 사이로 담쟁이가 있어 안채에서 바라다보는 풍치를 아름답게 한다.

안채도 문간채와 유사하게 “ㄱ”자 구조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터진 “口”자가 되었다. 수평으로 5칸과 수직으로 3칸인 것이다. 2칸은 터서 거실 겸 사랑방으로 만들어 선생이 사용했고 나머지 3칸은 안방이 되었다. 안방과 따님의 거처하던 건너 방 사이에는 2칸 넓이의 거



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방과 안방이 있는 본채 뒤편으로 긴 툇마루가 있다. 그곳에 앉아 여름날의 더위도 식히며 하늘 높이 떠오른 보름달도 감상할 수 있을 듯하다. 기단 위에 놓인 땃돌과 툇마루, 인방과 방문 그리고 창방, 침자 등으로 구성된 공간은 그야말로 예술이다. 흰 벽면과 갈색 나무를 이용한 공간 배치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비례 미에 감탄하게 만든다. 선생의 사랑방 문턱은 다른 것보다 높다. 방문을 활짝 열고 팔을 뻗어 턱을 괴고 문턱에 기대 후원을 바라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한 장치임에 분명하다. 또 안방의 2개 방문 외는 그 높이를 각각 달리하여 균형과 과거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기둥 위에 있는 주심 공포에 새겨진 소용돌이 무늬는 선생의 취향을 보는 듯하여 좋다. 그건 신석기 원시인이 새긴 암벽화 속 용수철 무늬를 닮아 있다. 단순한 추성성이 돋보이는 분청사기를 좋아하시던 선생의 마음이 그렇게 남아 있는 듯 하여 좋다. 지금도 그가 기거하시던 방안에는 그림 한 점이 걸려있다. 윤보 선생의 그림처럼 보인다. 그의 순진함이 드러난 작품이 잘 어울린다.

기와지붕의 처마 선을 보면 수평으로 주우~옥 이어지다 끝에 가서 살짝 올라간다. 금방이라도 그 긴 기와지붕이 커다란 봉황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라 갈 것 같은 상승감이 느껴진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이런 멋진 처마 끝선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이 있으니 물받이 양철통이다. 봉황 모양을 새긴 물받이 통은 일제가 남긴 흔적이다. 이것이 멋진 한옥의 처마 끝선을 가리고 있다.

선생은 마당 전원보다 후원을 사랑하셨을 것 같다. 사랑방에 “두문즉시 심산(杜門卽是深山, 대문을 닫으면 깊은 산속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이라는 현판이 있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안채 앞쪽으로 돌아 나오면 앞마당으로 곧장 나갈 수 있는 방문이

거의 없다. 다만 사랑방에만 하나 있고 안방의 띠자 무늬 방문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장식적인 측면이 강한 듯하다. 안방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는 대청을 거쳐 출입한 듯하다.

전체적으로 안채 앞을 왼쪽에서부터 훑어보면 흰 벽면이 대부분인 첫 번째 칸을 지나면 사랑방에 붙어있는 방문이 보인다. 이어 아(亞)자살 장식으로 만든 아름다운 환기창 4개가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또 하나의 흰 벽면이 나타난다. 그 옆으로 띠살 무늬 방문이 고착되어 있다. 그런 다음 “ㄱ”자로 꺾여 대청마루와 따님이 이용하던 건넌방이 있다. 대청은 우리 한옥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우물마루(井)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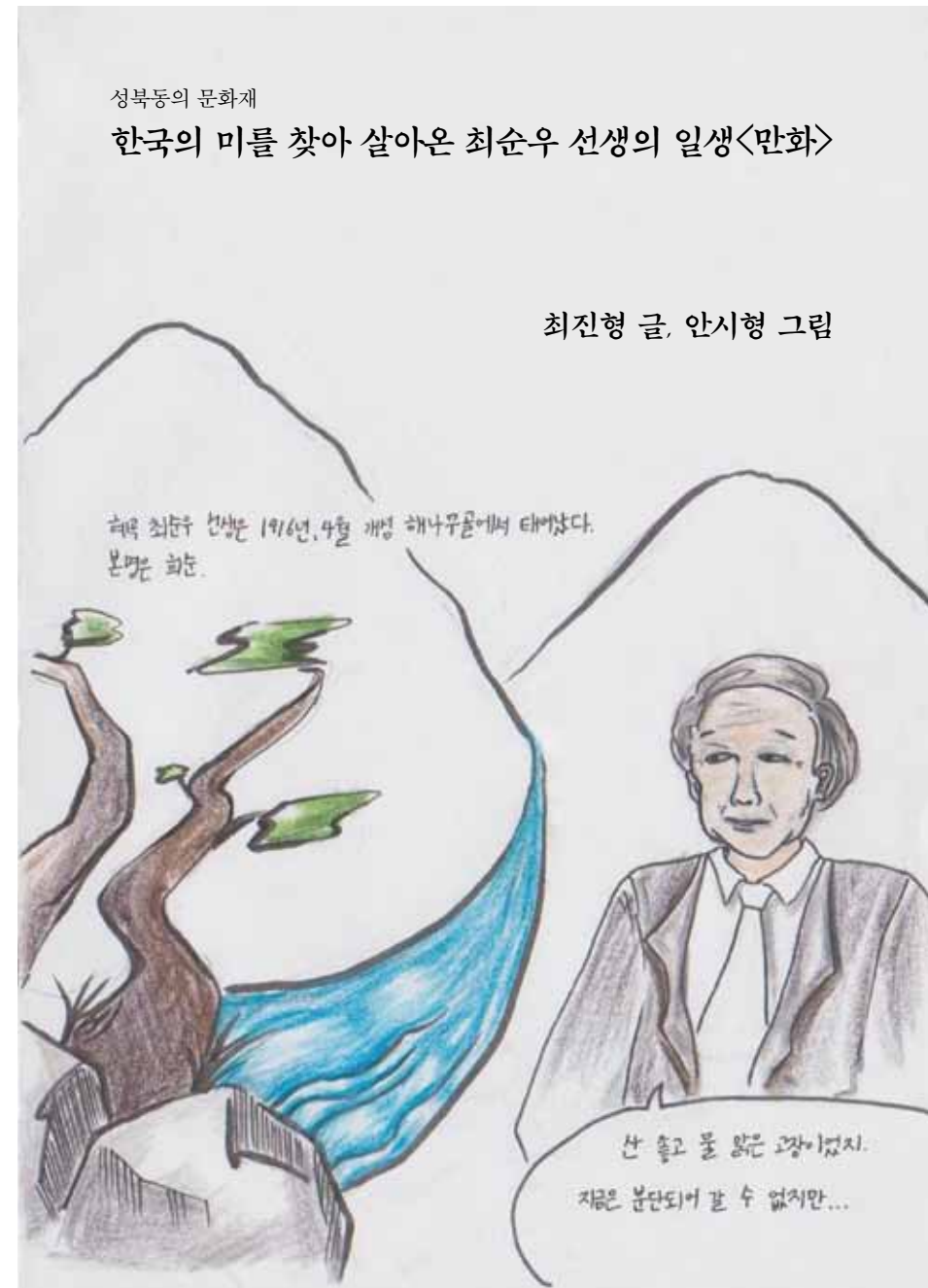
전면부에 위치한 툇마루는 사랑방과 안방을 걸쳐 있으나 대청마루 앞에서 끊기고 따님 방문 앞에 또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따님이 이용하던 건넌방은 밖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문이 없다. 안방처럼 대청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여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환기할 수 있도록 만든 창문은 유리로 되어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같이 동행한 둘째 딸이 말한다. “아빠! 저 유리 창문에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라고 말한다. 가만히 보니 산도 보이고 전봇대가 줄지어 서있는 신작로도 새겨져 있다.

이 옛집에 걸린 문구를 보면 선생이 추구하던 이상 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글귀에서는 자연풍취를 즐기던 낙향 선비의 모습이 그려지고 안방 출입문 위에 걸린 현판(溫良恭儉讓而得之; 유학이 추구하던 5가지 덕목으로 온화, 선량, 공경, 검약, 겸손)에서도 선비들이 지향하던 좌우명이 보인다. 건넌 방문 앞에 부착된 매심(梅心)에서는 그 방에 거주하는 따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는 매화를 닮기 원했던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귀양처에서 시집간 따님에게 매화를 그려 보내준 정약용 선생의 마음을 닮아있다.

선생은 이 땅에 남아있던 마지막 선비가 되고 싶었던 것일 게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수(낮잠: 吾睡)나 심산(깊은 심심산골: 深谷)과 같은 글귀에서 도가의 신선 풍류가 느껴진다. '집은 그 주인을 닮는다.' 하였던가. 올곧은 선비와 유유자적하는 신선의 모습이 이 옛집에서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되살려 일반에게 공개한 많은 분께 감사한다. ㉞

-
박진하는 명상가이며 본지 편집위원이고, 현재 성북동에서 식당 '디미방'을 운영하고 있다. 요가와 명상에 관한 책을 두 권 내기도 했으며,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다. 이 답사기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딸과 함께 최순우 옛집을 답사하고 쓴 글이다.



송도 고등 보통학교 5학년 여름방학. 우연히 개성 부립 박물관에 갔다가
당시 관장이던 우현 고류협 선생을 만나 미술 연구를
권유받다. 평생 가야할 길을 알려 주신
스승을 만나다.



학교 졸업 후 개풍군청 고직계에서 서기로 근무하면서
고류협 선생을 따라 개성과 개풍군 일대의 고려유적지를
답사하는 한 편, 고려청자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1946년 국립박물관 개성분관 서기로 발령.

박봉에 밀려 많이 힘들었지만, 스승 고류협 선생이
재병으로 돌아가시자 그분의 뜻을 이룩한 한국고미술연구를
계승하기로 결심하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는 것이 선민지 크라 민족이
아바지 하는 결심을 알게 되었지.

1949년 서울 국립 박물관으로 발령. 박물관 (현재 학예연구사)으로 승진.



아버님과 형, 누나, 처갓집 식구들까지
여기 나와 온 혼들던 기억이...
아아, 대시는 돌아가지 못했지



1950년 국립박물관에서 <국보특별전회> 개최.
이때 두번째 층은 간송 전형필을 만날
이 전회에는 일주일간 38000 명의 관람객이
몰려드는 대성황을 이뤘다.

보러봐도 못 먹던 서대였지만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만큼은 선진국 부럽지 않았지!

전형필은 이 전시회를 위해 소장하고 있던
'청자상감문화문대병'을 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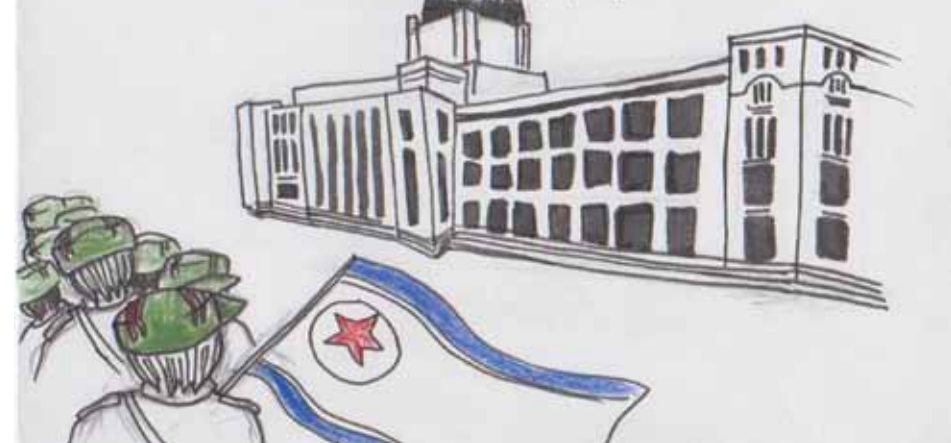
밝게 빛나는 비백과 단장하얀머도 부드러운 관의 자태.
특은 고려 하늘로 향해 가는 듯한 학의 모습까지
감탄을 금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태이다.



이 화상을 계기로 전형필 선생과의 평생의 교유가
시작되었지. '순우라는 내 필명'과 '해묵'이라는 아호를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셨지.



1950년 6.25 전쟁 중에 북한군의 서울 장악으로 문화재들이 뿔뿔히 났는데,
자연작전을 써서 오늘날 간송미술관과 국립박물관의 보물들이 살아남게 됨.



1952년 최순우 선생은 지붕 누 구조를 위해 경북 경주에 있는 부석사라는 절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때 절집 기둥에 기대어 바라본 소백산맥 능선과, 역시 자연과 한 몸처럼 이루어진 절집의 모습이 감동 받아 글을 쓰게 된다. 이 글이 바로 '국립낙동 박물관기둥에 기대서서'라는 글이다.

이 글은 '한국의 재발견'이라 일컬어지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해졌다.

절집 기둥에 기대어
섰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
합침이 아끼는 산능선의 아름다움과
또 그 속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무량후천 같은
국산에, 이러한 건축을 한국인이 했구나!
감탄 할 수 밖에...

1957년 12월부터 58년 8월까지
천사당당 학예관이 되어 여러 전역을
돌며 한국의 문화재를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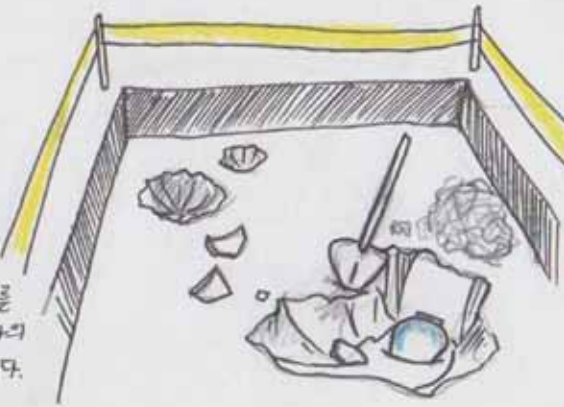
미국의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기사를 실었고, 박물관장들과 도자기 연가들도
우리 유물의 아름다움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역시 가장 관심있는 것은 화려한 금관과 고려청자였어.



1961년부터 유럽 5개국을 순회하는 '한국국보전'을 기획하고
계를 맡다. 유럽 전시는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나 돌아와 보니
소송으로 파산한 진형필(현행)이 돌아간 것을 알게 된다.
누가 못지 않게 열심히 일하면서 통통이 감외와 연구, 저술에
힘썼으나 항상 학계의 벽을 느꼈던 혜규. 그런 그에게
언제나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던 진형필의 죽음 표에서
바치 의욕이 된 듯 힘든 세월 전야했다.

"이제 누구와 가슴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나?"

1964년 5월.
천남 강전에서 청자기와 가마터 발견.
이후 국립박물관에서 1964년 가을까지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굴 작업 진행.
발견 이 "청자의 고향"임을
알려준 대발견이다.
그 옛날 땅 고쳐잡다 형식이 가뭄군을
살살이 생겼고, 청자 문양이던 고려청자의
가마터를 25년이 지난 후 강전에서 찾은 것이다.



1966년, 한글협정에 따른 문화재 인수를 위해
국립박물관 대표로 일본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가
개성에서 도록해 본왕에게 진상했던 고려청자
20여점을 비롯,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반출되었던
문화재 중 일부를 환수해줌.

1974년, 제 4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 취임.
언제나 한터미 같은 박물관일과 현장 발굴조사,
외국 순회 전시 등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예술품들에 대한 연구와 저술에도 힘을 썼다.





-
최진형(글쓴이)는 성북동에서 태어나 고 3인 현재까지 살고 있다. 장래 역사학자가 꿈
 이며, 이 글도 역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동고등학교에 다니
 고 있다.

안시은(그린이)도 성북동에서 태어나 고2인 현재까지 성북동에 살고 있다. 장래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려는 꿈을 갖고 있으며, 이 그림 작업도 그런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 여기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병설 미디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성북동, 이곳

성북동91번지의원

최명은

봄, 가을, 병원이야기

어제 점심시간에 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봄이는 병원 마당에 사는 30킬로그램이 넘는 레브라도 레트리버 개이다. 나이는 한 살이 채 안됐는데 처음 병원에 안겨서 왔을 때 작은 인형만 하던 강아지가 하루하루 쑥쑥 크더니 이제는 안을 수 없는 거대한 크기가 되어버렸다. 실제로는 자신이 아직도 아주 작은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봄이는 사람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해서 훈련을 받으면 맹인안내견을 할 수 있는 종류의 개이다. 병원 마당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찌나 애교를 떠는지 인기가 너무 좋아 대문 사이로 이것저것, 초코파이, 김밥 같은 살찌는 음식들을 신나게 얻어먹는 장면이 종종 목격된다. 덕분에 봄매는 점점 둥글둥글한 알 수 없는 라인의 강아지가 되어가고 있다.

가을이도 병원에 사는, 종종 대기실에도 들어와 있는 3킬로그램이 채 안되는 하얀 마르티스 강아지이다. 봄이가 오기 전 가을에 와서 가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병원 개원할 때부터 함께 했으니 나를 개원멤버이다. 봄이의 십분의 일도 안 되는 크기이지만 성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침에는 이층 베란다로 출근해서 온 동네를 향해 악다구니를 쓰며 짖어댄다. 옆집이 수도원이 아니었으면 벌써 민원이

몇 번 들어왔을 것이다. 정말 열광적이고 못되게 악을 쓰면서 짓어대는 가을이의 몸 상태를 걱정하신 옆집 신부님이 찾아오셔서 면담을 해 주셨다. 가을이를 무릎에 앉히고 쓰다듬으시면서, ‘가을아, 신부님은…가을이의 목이 걱정돼…가을이가 그렇게 짓으면 가을이의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을아, 그만 짓자…가을이 목이 아프지?’ 그래도 가을이는 여전히 아침마다 성북동 24로 길을 지키며 짓어댄다. 악악악악….

사람들이 동물병원이나고 묻기도 하는 성북동91번지 병원의 풍경이다.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고, 동네 꼬마들이 강아지 만져본다고 엄마와 할머니 손을 잡고 끌고 오는 곳이다. 굳이 다른 병원과 다른 점들을 꼽자면 지하철역 근처의 대로변에 있지 않다는 것, 마당에 나무가 울창하고 길에서 보일만한 거대한 간판이 없는 점, 그리고 대기실이 여유롭게 꾸며져 있어서 일반 병원에 가면 느끼는 무언가 빨리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없다는 점 정도일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형식의 병원이 아주 특이한 것은 아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삼십 년쯤 전에만 해도 동네마다 ‘의원’이라고 부르는 동네병원이 있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의원에 가면 약도 지어주던 시스템이었다. 그런 의원들은 지금처럼 지하철역 주변이나 번화가에 몰려있지 않았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골목 초입의, 너무 큰 대로변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장님들은 나이가 꽤 연로하신, 아마도 의과대학을 나와서 개업을 하고 한 자리에서 나이를 들며 본인의 의원을 계속 운영하셨을 그런 분들이었다.

의과대학을 다니던 때 의약분업사태가 있었고, 지금 의료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그 때를 기점으로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 되었다고 한다. 의대생이었을 때 일산에서부터 신촌을 지나 대학로까지 학교에 도착하는 먼 길을 버스를 쭉 타고 지나온 적이 있

다. 어디를 다녀오던 길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장거리를 버스를 타고 왔던 걸 보면 국립암센터에 실습을 다녀오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때 문득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병원들, 그러니까 대로변의 건물들에 들어서 있는 각종 병원들의 간판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그렇듯이 그때에는 수련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만을 상상하기에,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길고도 까마득하게 여겨지기에 때문에, 문득 칸칸이 들어선 건물 안의 판박이 같은 모습들이 갑자기 새삼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다. 저런 사무실 같은 병원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그런 만남의 공간 안에서도 의미, 삶의 활기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궁금함과 걱정들이 스쳐 지나갔던 적이 있다.

졸업을 하고, 수련기를 지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만남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주변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황 안에서 관계는 상이하게 변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내가 의과대학에 입학하던 시기의 의약분업은 의료의 상업화를 시작하는 도화선 같은 사건이었고, 수련을 받고 병원생활을 하고 개원을 한 이 시점들은 사보험, 병원의 대형화와 전문 병원화, 그리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으로 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나는 의사로 교육과 수련을 받았고 딱히 다른 직종의 일을 경험한 적은 없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또는 아직 경제활동에 임하지 않은 학생들, 은퇴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상을 가지고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간관계의 삭막함을 문득문득 느끼는 계기들이 있다.

지난 달 평일 오전에 시내에 업무를 보러 나간 적이 있다. 복잡한 시내를 통과해서 출퇴근을 하던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침 이른 시간의 사람들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눈에 떨 정도로 피곤하고, 삶에 지치고, 무언가 피로를 견뎌 이기며 먹고 살기 위해 전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표정 같았다. 그런 기운들을 느낄 때 문득 스쳐가는 사건들, 경험들이 있다. 병원이라는 곳에까지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의료진을 곤란하게 하는 소수이지만 어느 병원이나 존재하는 일정한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지조차 못하면서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구매하려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원하는 것도, 문제의 해결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인격적인 대접이라곤 받지 못한 것처럼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소통의 능력조차 잃어버린 것 같은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생·로·병·사의 과정,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들고 늙는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와 만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고 환산되어서도 안된다. 사람이 사람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접하는 것은 상품을 공급하여 소비시키는 과정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라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그 상품을 더 빨리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전반적인 사회의 건강지수를 하락시킨다. 어쩔 수 없이 사회의 다른 서비스들은 그 행위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고시하고 그 가격으로 서비스가 교환되어야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의료의 공급과 전달은, 필연적으로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만나서 매번 환자의 상황에 따라 관계가 누적되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상품화되기 불가능하다는 고유라 특징을 가진다.

성북동에 개원을 하고, 좀 더 원래 의학의 목적에 맞는 병원을 꿈꾸고 그리면서 한 생각들은 그다지 구체화되거나 치밀한 것은 아니었

다. 다만 먹고 살기의 고달픔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기에 이리 저리 쫓기는 삶에서, 의사로서, 의료의 공급자로서 대형병원 속에서 의료를 경험하면서, 나름 내린 결론은 하나 있었다. 어떠한 구조나 사회 안에서라도 개인의 선택은 나 스스로의 일상을 선택하는 것뿐이라는 점이었다. 거대한 담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리기에는 당장의 내 일상을 손보는 것이, 그 일상을 의미 있고 군더더기 없는 만남으로 채우는 것이 나에게 더 급하고, 현실적이고, 중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의사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 않은 가장 단순한 구조 안에서 환자를 만나고, 그 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작은 나무들의 초록을 보며 삭막함을 덜어낼 수 있는 곳, 직원들에게 점심값 몇 천원을 지급해서 밥을 사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먹는 일상, 봄·가을 강아지를 보러 새벽에 엄마 손을 끌고 내려오는 한 두 살짜리 꼬마들과 가까이 있는 것... 그런 것들 안에서 불편함과 질병상태를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한 절차로 해결하는 과정을 살아가고 싶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은 날마다 변화해가지만 일상의 날들이 쌓여갈수록, 동네 꼬마들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나 자신이 되어갔으면 좋겠다. ㉞

-

최명은은 성북동 덕수교회 맞은편 다리 건너 단독 주택에 자리를 잡은 91번지 의원원의 의사다.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단지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의사를 꿈꾸고 있는 친근한 이웃 같은 의사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기억 속의 작은 공간, 네팔 사진관

최성수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사이

성북동은 날마다 변한다. 한때는 골짜기에 숨어있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역사문화지구가 되고, 주말이면 줄을 지어 외부인들이 문화재와 북악산 등산을 위해 찾아온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카페가 생겨나고, 음식점과 주점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인가, 주말이면 성북동은 떠들썩하기까지 하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걸리 잔을 들기도 하고, 길상사와 성북동 성당을 오가는 신자들이 골목을 메우는 탓에 이제 성북동은 예전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 또한 세상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너무 빠른 변화에 성북동 토박이들은 마음 붙이기가 영 녹록치 않은 듯하다.

이제 성북동에 남은 오래된 흔적이라곤 옛날 중국집, 한일 문방구 등이 전부다. 명랑 이발관은 옛 자리를 버리면서 가게 이름도 바꾸어 버렸고, 성북동 사람들이 묵은 때를 벗기던 성암탕은 한정식 집으로 바뀌더니 그마저도 그만 문을 닫아버렸다.

모던한 인테리어를 한 번듯한 가게가 들어서는 사이, 성북동은 어쩌면 성북동다운 맛을 지워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성북동이 완전히 상업적인 지역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

은 아니다. 여전히 성북동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있고, 오래 된 한옥들이 있으며, 식민지 시대 이후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옥이었던 양옥집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성북동을 가장 성북동답게 만드는, 언덕으로 이어진 골목들이 존재하는 한, 성북동은 어떤 상업적 자본의 물결에서도 제 모습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삶들이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은 사진관

어느 때 부터인가, 성북동에 눈이 그윽하게 깊고 얼굴이 적당히 검게 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빨랫줄에 걸린 빨래 같은 낮은 글자들도 가게 몇 군데에 걸리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던 어느 날, 또 아주 작은 사진관 하나가 문을 열었다. 옛 성암탕과 홍콩 중화요리 사이에서 길상사 가는 길 초입에 자리 잡은 그 사진관에도 어김없이 낮은 문자가 종이에 적혀 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구릿빛 피부에 눈이 그윽한 사람들이 사진관 앞에 줄을 서서 사진 찍을 순서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사진관 간판도 없이 그저 'PHOTO'라는 배너 광고만 달랑 내다놓은 그 사진관의 주인은 유미영씨다.

취재차 가게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발을 멈췄다.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으러 들락날락 하는 곳이니, 당연히 주인도 외국인일 것이라는 짐작이 어긋나서였다.

네팔 사람들에게 여권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인 가게는 서너 평 남짓 될까 말까 한 작은 공간이 전부였다. 특별한 인테리어도 없이 귀퉁이에 사진기와 조명만 놓여있는 단순한 구조의 가게에는 그러나 특별한 것이 있었다.

가게 벽에는 네팔 풍경과 사람들을 담은 그림이 액자에 담겨 가지



नेपाली 
MRP फोदी

런히 걸려 있었다.

“이 그림은 네팔 포카라에서 본 마차 푸츠레 모습이고요, 이 그림은 네팔 어린이가 그린 명절 모습이에요. 우리로 치면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은 가족 모습을 그린 것이지요.”

그림 설명을 해주는 유미영씨의 얼굴에 얼핏 자랑과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취재 요청을 하고, 며칠 후 정식 방문을 했을 때, 유미영씨는 곱고 품위 있는 네팔 옷을 입고 있었다. 눈부시게 붉은 옷은 마치 히말라야 설산에 핀 붉디붉은 한 송이 꽃 같았다.

“이 옷을 사리라고 해요. 네팔 전통 복장이지요. 제가 감고 있는 이 스카프만 해도 2m70cm예요. 빨간색은 네팔에서는 행운을 뜻하지요. 주로 결혼식 같은 좋은 일에 입는 옷입니다.”

네팔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을 더욱 빛내는 것이, 어찌면 네팔에 대한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진관이 너무 좁지 않느냐고 묻자 유미영씨는 고개를 내젓는다.

“아니예요. 오히려 작은 공간이 네팔 친구들에게는 친근감을 준답니다. 마치 고향집 같은 느낌이 들게 하나 봐요.”

그녀의 말대로 사진관은 작지만 정겹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 액자들, 출입문에는 네팔을 상징하는 꽃목걸이(말라)가 걸려있을 뿐, 다른 장식은 없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수수한 것이 그대로 히말라야의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서 설산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작은 집 같다.

네팔 여행을 통해 네팔을 느끼고

유미영씨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네팔 대사관의 대사 비서로 일자리를 옮긴 것은 아마도 운명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네팔에 대한 인연의 끈이 그녀를 네팔 대사관에 가게 했고, 네팔로 떠나게 했고, 이렇게 네팔 사진관을 열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그는 가끔 한다.

몇 년, 네팔 대사관의 대사 비서 일을 하고 난 뒤 그녀는 2013년 4월 네팔로 2주간 여행을 떠난다. 대사관 근무 시절 네팔 사람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여전히 네팔어는 서툴고 네팔이라는 나라는 낯선 곳이었다. 그러나 그 여행에서 그녀는 네팔의 매력에 빠지고 만다.

히말라야라는 세계 최고의 산에 깃들여 사는 나라,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 가난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귀국 후 잠시 머물던 그녀는 다시 네팔을 방문한다. 한 달 간의 일정이었고, 네팔 국방부의 초청 형식이었다. 계룡사에서 열린 군 문화축제에 네팔 군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했던 데 대한 감사의 초청 형식이었지만, 주로 머문 곳은 네팔 사람들의 가정이었다. 네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보낸 그 한 달이 그녀의 삶에서 가장 네팔과 가까워진 시기였다. 함께 사진을 찍고, 서툰 대화를 나누면서 네팔 말에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누는 정을 온전히 느끼고 온 한 달이었다.

지금도 그녀는 그 한 달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촉박해 떠나야 하는데도, 이별이 아쉬워 붙잡고 놓아주지 않던 산촌의 사람들, 자신이 왔다고 잔치를 열어주고,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정겨운 사람들의 기억이 그녀를 네팔에 빠지게 했다.

네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네팔과 맺은 인연의 끈을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하던 끝에 네팔 사진관을 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네팔 사람은 약 2만 여명이다. 중국, 캄보디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네팔은 그동안 서기가 아닌 네팔력에 따라 해를 세었고, 여권도 수기여권이었다고 한다. 그 여권을 서기로 기록하고 전산화하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모든 네팔 사람들이 여권을 바꾸어야 하고, 그래서 네팔 대사관은 날마다 여권을 갱신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한다.

때로는 서툰 한국어로 사진관을 찾고, 대사관을 묻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북동에 많아진 것이다. 그들이 좀 더 쉽게 사진을 찍고,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 그녀의 의도였고, 지금 상당수의 네팔 사람들은 그녀의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고, 고향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낯선 한국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한다.

유미영씨는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며, 한국 생활의 도우미가 되어 주기도 한단다. 여권을 만든 후 2주 안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위치를 묻는 사람들에게 출입국관리소를 안내해주기도 하고, 돌아가는 교통편을 알려주기도 한다. 낯선 땅에서 제 나라 말로 안내해주는 그녀의 도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녀의 역할이 결코 소소한 것이 아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완도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리저리 수소문해 찾아주었더니, 얼마 후 완도에서 김을 한 상자 보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밝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네팔 친구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는가를 깨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 사진관이 네팔 친구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었으면 해요.”

사진관의 역할을 묻는 내게 그녀는 그런 소망을 털어놓는다. 실제로 사진관을 방문한 네팔 친구들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객지 생활을 외로움과 어려움을 달래곤 한단다.

사진관 겸 네팔 문화를 알리는 곳으로 이 공간을 키워가는 것이 그녀의 꿈이다.

“네팔에 대한 물건들도 많이 모아 전시해서 네팔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네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이 네팔과 한국을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꿈꾼다.

“성북동 사람들도 지나가다 들러 네팔 구경을 하고 네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요즘 성북동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분들과도 네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더 나가서 네팔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성북동뿐만 아니라 한국을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네팔이 비록 가난한 나라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해 진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나누는 가운데 두 나라가 행복해지는 꿈을 실현하는 데 제가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요.”

모든 꿈은 작은 데서 시작된다. 비록 좁고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그녀의 꿈은 점점 커질 것이라는 믿음이 든다. 그리고 너무 빠르고 바쁘게 변화하는 성북동에도 그녀의 가게처럼 작고 소박한 공간들이 숨 쉴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성북동이 상업적인 마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녀

의 사진관이 가장 성북동다운 공간이고, 그 꿈이 마을이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이다.

간판조차 없는 작고 소박한 가게, 거기에서 네팔과 성북동의 꿈이 함께 영글고 있다. 

-
최성수는 시인이고 본지 편집위원이다.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 <작은 바람 하나로 시작된 우리 사랑은>, <천 년 전 같은 하루>, <꽃, 꽃잎> 등의 시집과 청소년 소설 <무지개 너머 1,230마일>을 내기도 했다.

인터뷰

성북동에서 일구어가는 다문화의 꿈

가타히라 사토미 다문화 교사

/ 오예주 정리



성북동도 이제 세계화에 따른 현상으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이주민 등이 함께 살게 되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성북동의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성북동에 살면서 국제문화이해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본인 가타히라 사토미 선생님을 찾아 인터뷰를 청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가타히라 사토미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가타히라 사토미입니다. 저는 현재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효고현 아와지섬(오사카옆)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고베에 거주하다 한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업은 이주원어강사(서울교육청 소속)이며, 초등학교 및 국제언어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에서 국제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자녀 상담, 언어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에는 언제부터 살아오셨나요?

2001년 처음 성북동에 오게 되었는데, 당시 성북동에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동생이 살고 있었고, 2001년 결혼과 함께 남편을 따라와 4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형제를 낳아 기르셨고 남편은 그 중 7번째 아들이죠.

남편과는 어떻게 만났나요?

여행을 좋아해서 한국 여행 중 알게 된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한국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그 언니 집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언니의 선배였는데 일부러 소개시키려고 부른 것 같아요. 1년 정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장거리 국제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고, 지금은 성북초등학교 6학년인 딸(오유나)도 하나 있어요. 1년에 한 번 가족이 일본 친정에 다녀 옵니다.

성북동이어서 좋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북동은 도시같지 않고 시골처럼 정겨운 곳이에요. 이웃사람들과 서로 인사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며 서로 돕고 사는, 정이 많은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더욱 좋지요. 일본사람들은 남에게 소음 등으로 피해를 주는 아파트는 마음이 편하지 않기에 마음이 편한 개인주택을 선호하는데 성북동이 그런 마을이어서 좋아요. 성북동은 일본에 살던 마을처럼 오찌쭈꾸(마음이 안정되고 편한 느낌)한게 비슷해요. 성북동에는 나쁜가게가 없어서 더욱 좋아요. 오락실이나 게임장이나 술집 등 유해한 장소가 없어서 좋은데 술집은 자

꾸 생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성북동에서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한국사람 이름과 지명이 어려워 기억을 잘 못하지만 딸 유나가 성북동을 잘 알고 있어서 간송미술관, 최순우옛집, 성곽길 등 여러곳을 함께 다녔고 북정마을 사진전에도 가 보았어요. 북정마을에는 노인들만 사는 것 같았어요(웃음). 성북동에는 노란피자집을 비롯해 맛집들도 많아요. 곱창도 좋아하고 초밥도 좋아해요.

성북동에 살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지요?

한국에 시집 와 낯선 성북동살이에 손위 형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서 참 고마웠고, 지금도 성북동에 둘째, 셋째 형님네가 살고 있으며 서로 돕고 지냅니다. 김치도 해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가져다 주시고 잘 해 주셔요(웃음).

성북동이 앞으로 어떤 마을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신지요?

성북동이 재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마을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이 싫고 지금처럼 이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정감 있는 마을이길 바래요. 앞으로도 오락실, 게임방, 술집 등 유해한 가게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예주는 성북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을 했으며, 지금은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성북동에 터 잡고 살아가는 꿈을 갖고 있다.

한장 스케치

17717에서 열린 박미례 개인전 <괴작 怪作>

성북동 177-17번지

www.17717.co.kr



나와 성북동, 그리고 갤러리 오뉴월의 ‘祝 發展’

최윤석

나의 외갓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2층짜리 양옥집으로, 그곳에는 친척 어른들을 비롯해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촌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과도 왕래가 잦았던 터라 외갓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집안은 물론이고 동네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니며 온갖 놀이에 열중하곤 했다. 인원 수가 많았던 데 비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평화롭게 어울려 놀기 위해서는 놀이거리를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무엇이든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기에 학교나 학원에서 터득한 놀이들을 사촌들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연극적인 요소가 필요할 때는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일도 허다했다. 학년이 높아지고 커다랗게만 느껴졌던 이층집이 비좁게 느껴질 즈음, 우리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집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익숙한 제기동 골목으로부터 시작해 종암동, 안암동에서 보문동까지... 건너나 버스, 지하철을 타고 낯선 동네를 탐험하고 오는 기분은 마치 먼 바다까지 헤엄쳐 나갔다 돌아오는 듯 긴장되고 두려운 동시에 짜릿한 기분마저 들었다. 무사히 집에 돌아와 아랫목에 누워 각자 수첩에 빼곡히 적은 탐험일지를 읽으며 찜찜돈으로 산 불량식품을 먹고, 결국은 녹초가 된 몸이 온돌 바닥 온기에 늘어붙듯 까무룩 잠들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미술작가다. 때때로 내가 미술작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에 대해 궁금증이 일곤 한다. 특히나 동료 작가들의 2세들에게 잠재해있는 예술적 능력들이 엿보일 때면 그들과 달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적 혜택도 없이, 상대적으로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나는 어떤 연유로 미술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향수에 젖어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순례자의 발걸음과도 같은 엄숙함으로 기억을 찬찬히 거슬러 올라간다. 돌이켜보면, 대학생 시절에도 작가가 되는 것에 큰 뜻이 없었고, 입시 미술생의 시절은 더욱 아니다. 오! 하마터면 미술을 저버릴 뻔했던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어! 입시 미술은 미술 본연의 즐거움을 송두리째 앗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끔찍했다. 게다가 예술 고등학교 준비부터 시작한 바람에 나의 입시미술 기간은 매우 길고 지루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면밀히 당시를 떠올려보자면, 나는 미술학원이 아닌 다른 곳, 나의 외갓집에서 아주 은밀하게 미술의 즐거움, 즉 무언가를 창작해내는 기쁨을 충족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결국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영국 런던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게 되었다. 작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도 확신도 없었지만, 미술 이외에 다른 일을 잘해낼 자신이 없었기에 작가를 결심했는지도 모르겠다. 때문에 불성실한 대학생활을 유학이라는 뒤늦은 처사로 면죄 받고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학길에 올랐지만 여전히 막연하고 불확실했던 마음은 떨치기 어려웠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새롭게 다시 시작한 공부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흥미로웠고, 잠시 잊고 지냈던 미술의 즐거움을 되찾은 듯한 기분과 이 일이 나뿐만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다. 약 3년 가까운 시간을 공부에 매진하고, 졸업 후 2년을 더 런던에 체류하며 전시 활동과 일을 병행하며 지내다 2013년 9월 13일, 약 5년 반의 타향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짧지 않은 공백

기간 덕분에 한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기 위한 고민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질 무렵, 대학 선배의 초대로 성북동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북동’이란 지명은 으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수화기를 들며, ‘네, 성북동입니다’라고 주인의 부재를 대신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에 머물러 있었다. 성북동은 세월의 모진 풍파에도 부춘의 위용을 뽐내며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성지와도 같은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거다. 일생에 단 한 번도 성북동을 가보지 않은 서울 촌놈은 이러한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 내렸다.

당시 선배의 작업실은 좁은 성북로 12길을 따라 10여 분쯤 올라가면 마주치는 2층 양옥집이었다. 꽤 오래되어 보이는 주택을 크게 고치지 않고 동료 작가들과 나누어 쓰고 있다는 작업실 내부는 예전 제기동 외갓집을 떠올리게 했다. 마당은 좁았지만 아늑한 느낌이 있었고, 집 안은 적갈색 나무 바닥과 오래된 집 특유의 포근한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두툼한 계단 선반에 손을 얹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대는 계단을 올라 다다른 선배 작업실의 방바닥에는 근래 찾아보기 힘든 모노톤 장판이 단정하게 깔려 있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작업실 안의 모든 풍경이 이제는 다세대 주택으로 새롭게 지어져 그 모습을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옛 외갓집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반가운 마음에 작업실 구석구석을 살피며 옛 추억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문득, 선배가 소개해주고 싶은 성북동의 갤러리가 있다며 앞장서 길을 나섰다. 당시 선배는 〈서울 지붕 첫 마을, 성북동 옛날 사진전〉이란 제목의 전시에 기획 및 참여 작가로 관여하고 있었고, 전람회는 ‘스페이스 오뉴월’이란 공간에서 열리고 있었다. 다섯 평 남짓한 크기의 공간에 성북동의 옛 모습 사진들과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연상시키는 손 글씨가 선배의 작업실에서 받은 감흥을 배가해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때 비로소 한국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

았던 것 같다.

첫 번째 방문 이후, 나는 선배를 만나거나 동료작가들과 함께 전시를 볼 요량으로 종종 성북동을 찾았다. 핸드폰 지도를 들여다보며 더듬더듬 길을 찾느라 주변을 살필 틈 없었던 초행길과 다르게 이제는 동네를 느긋하게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특히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성북로를 따라 걸어오는 길가에 늘어선 작은 가게들과 조지훈 시비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을 관찰하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웠다. 성북동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늘 스페이스 오뉴월이었다. 딱히 반겨주는 이는 없었지만, 이 작은 공간이 풍기는 묘한 매력에 점점 도취되는 것 같았다.

10월 중순쯤으로 기억하는데, 성북동 선배와 오랜만에 만난 대학후배들과 오뉴월을 다시 찾아 당시 새로 시작하는 전시를 유심히 관람하고 있던 중, 사무실로 여겨지는 공간에서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선배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나와 후배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자신을 오뉴월의 대표라는 그는 쾌활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더니 다짜고짜 작가와 큐레이터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니 참가하라는 권유를 해왔다. 갑작스러운 초대에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구경이나 가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 들어 후배들과 근처에서 차 한 잔을 나누어 마신 뒤, 홀로 대표가 일러준 시간과 장소를 찾았다.

스페이스 오뉴월의 이층 세미나실에는 이미 스무 명가량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다. 다들 어색한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나 역시도 무슨 표정을 짓고 앉아 있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아까 그 대표가 일어나 다시금 자기 소개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제목 그대로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와 큐레이터 간의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교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학술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나를 잠시 낮 뜨겁게 만들었던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작가 및 큐레이터들이 모두 사전 신청을 거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15주 동안 매주 한 번씩 진행된다고 하니,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는 차치하고서라도 마치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혹은 무임승차객이 된 기분에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다 결국 자기소개까지 하고 말았다.

어색함과 설렘이 뒤범벅이었던 프로그램의 첫날과는 달리 15주간의 수업이 모두 끝난 후에는 참여했던 사람들 간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도 많아졌고, 더러는 전시도 함께하며 교분을 쌓기 시작했다. 스페이스 오뉴월도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성북동에서 기웃거리다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 덕분에 나는 앞서 불쑥 자기소개를 건네왔던 대표와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특히 그가 가지고 있는 성북동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역시 부산 출신의 외지인으로 어떠한 연유로 성북동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역에 말 걸기’라는 명분아래 마을 안에서 다채로운 일을 꾸미고 있었다. 나 역시 서울 태생이긴 하지만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드나들기 시작한 성북동에 대한 알 수 없는 애정을 품고 있던 터였다. 그러던 와중, 불현듯 대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나에게 스페이스 오뉴월의 연례행사인 <성북동 마을 축제 메이페스트 (O'NewWall MayFest)>의 기획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과거 행사 기획의 일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나는 대표의 제안에 다소 어리둥절했다. 대표가 내게 쥐어준 ‘협력 큐레이터’라는 직함도 낯설었을 뿐더러, 갑작스런 제안에 마을에 대한 이해도도 현저히 낮은 상황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의욕은 앞서지만 동시에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마을 축제의 준비는 나의 미숙함과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우려와

는 반대로 <메이페스트>에서 나의 역할은 축제의 프로그램들 중, <축발전>과 <오뉴월 버스킹>의 구성을 돕는 것이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오뉴월의 <메이페스트>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젊은 작가라면 누구나 그림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걸자(Let's Hang Whatever You Can Carry)>와 오뉴월 앞 교통섬을 중심으로 골목마다 미디어 작가들의 영상 작품을 설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BYOB(Bring Your Own Beamer) Seoul> 등의 전시 프로그램을 이미 선보인 바 있다. 이렇듯 예술 작품의 전시, 관람 방식의 문턱을 낮추고 축제의 형태로 마을과 예술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자처해온 오뉴월의 <메이페스트>는 세 번째 축제를 기점으로 성북동의 작은 가게들과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 진화된 형태의 마을 축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성북동이 서울 시내의 다른 동네들과 달리 가맹점 내지는 파견점포 형태의 가게가 드문 지역적 특성, 그리고 이러한 작은 가게들과 주민들 간의 잦은 왕래가 근래에 보기 드문 공동체적 생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에 착안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축발전>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예술적 결과물이 아닌, 과정으로서 성북동의 작은 가게들과 젊은 예술가들이 만나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각자의 앞날에 건투를 빌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8명의 작가들을 섭외하는 것을 시작으로 참여 작가들과 함께 성북로를 기준으로 넓게 산개해 있는 가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협업이 가능한 곳을 모색했다. 하지만 가게 섭외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마을 축제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는 않았으나, 가게와 예술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는 우리의 취지는 설득력이 부족했다. 많은 가게 주인들은 장사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혔고 참여 작가들 역시 가게



로서 많은 일을 하며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성북동과의 만남, 오뉴월과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인데, 덕분에 성북동과의 만남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진다. 사촌들과 이리저리 동네를 누비며 작당모의를 했던 것과 같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흥미로운 일들을 도모하며 다시금 미술의 즐거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사람들과 나누는 것의 기쁨을 다시 찾은 듯하다. 

-
최윤석은 화가다. 전시 ‘祝 發展’은 지난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성북동에서 개최된 새로운 전시회다. 성북동을 사랑하는 미술가들이 성북동 곳곳의 여덟 가게와 협업한 여덟 개의 작은 전시회로, 예술가와 주민의 삶을 결합하고 동일화하는 소중한 작업이었다. 최윤석은 이 전시의 기획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성북동의 예술을 위해 함께 할 계획이다.

의 섭외가 어려워지며 작업 착수 일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자 최초에 염두에 두었던 계획을 거듭 수정해야만 했다. 손사래 치는 가게 주인들의 모습을 통해 프로젝트가 낭만적인 측면에만 천착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나 또한 성북동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오뉴월과 작가들은 새로운 가게들을 물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거절당한 가게에도 재차 찾아가 마을 축제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결국 성북로 16길에 위치한 ‘백옥 피아노 교습소’, ‘성북동 포토 사진관’, ‘성북 홈패션’을 비롯해 ‘카페 일상’, ‘해동 꽃농원’, ‘탐피탐피 탭댄스 스튜디오’ 등의 장소들과 협업을 완수하고 2014년 5월 9일 〈메이페스트: 축발전〉을 무사히 오픈할 수 있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 년이 지났고, 성북동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사계절이 흘러갔다. 걱정했던 것보다 작가

특집, 골목 이야기 2

홍익중고등학교 주변, 재개발 3구역 마을

골목은 골목과 이어지고,
지붕은 지붕과 맞닿아 있는 곳

성북동의 특징 중 하나는 골목과 구릉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데 있다. 성북동은 초입부터 동네 끝까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골목은 성북동의 주택들이 골짜기 비탈에 지어지면서 필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성북동의 골목은 집으로 대표되는 성북동 사람들의 삶의 속살이다.

본지는 지난 호부터 매호마다 성북동의 골목 마을들을 탐방하고, 탐방기와 그 골목에 사는 사람의 인터뷰를 싣는다. 이번 호의 골목 기행은 재개발 3구역 마을이다.



① 최지훈 기념 조형물

② 바지락 광광수

③ 경기 쌀 상회

④ Greenland in Blue

⑤ 서인빌딩

⑥ 선자단지

⑦ 서울 성북초등학교

⑧ ⑭ O'NewWall / 동네공간

→ 뉴이스트

→ 동양대

북촌한옥마을

⑪

⑩

⑨

⑧

⑫

⑬

구름마을

⑭

⑮

⑪

⑥

⑤

②

③

④

①

→ 동양대

⑨ 스페이스 캔

⑩ 네팔 대사관

⑪ 성곽원

⑫ 연세대학교

⑬ 관동서 화재지

가다가 돌아보면 걸어온 골목이 더 고운 마을

장영철

일시 : 10. 25(토) 15시 30분 ~ 17시

장소 : 홍대부고 버스정류장 ~ 조지훈생가터

코스 : 홍대부고 버스정류장(소문난 국수) - 홍대부고(중)정문 - 성북로 14가길 -

성북로 16가길 - 선잠로 길 - 스페이스 오뉴월 - 운우미술관 - 동네공간

성북동의 골목이야기 두 번째를 위해 홍익중고등학교를 마주보고 왼쪽 마을인 소위 성북동 재개발 3구역을 찾아가 보았다.

성북동이 서울의 대표적 골목투어코스로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성북동 재개발 3구역은 골목길 투어로는 알려지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고, 한양도성이 있는 북정마을과 간송미술관과 저택들이 들어선 선잠로길에 비하여 눈에 띄는 건축물과 역사적 유물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스카이웨이 산책로로 오르는 길 중에서는 골목의 정취와 오래된 삶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다. 또한 근대 도시의 전형적인 주택 양식인 양옥집이 상당수 온전히 보전되어 있으며, 3번지 일대에는 구릉마을의 특징인 집과 집이 이어지고, 골목과 골목이 끊어질 듯 연결되어 있어 골목 투어로는 가장 적당한 지역이기도 하다.

첫 걸음은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소문난 국수집 골목을 따라 간다. '소문

난 국수집'은 홍대부고 골목 초입에 있는 허름한 국수집이다. 나름 고급스러운 음식점과 새롭게 문을 여는 맛집들이 밀집한 성북동에서 저렴한 가격 대비 맛있는 잔치국수와 바지락 칼국수를 맛볼 수 있는 넓고 작은 국수집이다. 변화의 물결에서 홀로 남아 안쓰러운 몸짓을 하는 것처럼 그 국수집은 길 가에 있으면서도 넓고 허름하다. 성북동 3구역 골목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잡수고 가시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홍대부속고등학교 정류장에는 성북동의 대표시인 조지훈을 기념하는 기념물인 “시인의 방”이 있다. 성북3구역 골목투어의 만남의 장소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

개인적으로 성북동 간판 중 제일로 치는 '경기쌀상회'가 골목 어귀에서 나를 반겨준다. 그 가게 간판은 강렬한 인상으로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 동네에서 뛰어놀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붉은 벽돌로 쌓은 벽체와 보기 좋게 벗겨진 파란페인트 간판의 강렬한 첫 인상은 내가 서울로 올라와 처음 살았던 동네의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옛 어린 시절의 감성을 성북동에서 다시 느끼게 만들어 주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다.

'경기쌀상회'를 따라 서서히 올라가며 처음으로 마주한 갈래길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오른 쪽으로 걷는다. 길을 따라 얼마간 올라보면 올해로 60주년이 되는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정문에 이른다. 여기까지 짧은 거리에는 한옥부터 빌라, 독특한 형태의 단독주택, 슬레이트 지붕의 낡은 가정집까지 동네의 주거형태가 너무나 다양하게 모여 있어 각 시대를 대변하는 삶의 퇴적층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다양한 주택들은 골목투어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투어의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어서 발길은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정문 앞 마지



막 골목길(좌측)로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오후 4시경의 이곳에는 저물어가는 햇살이 비탈진 동네의 구석구석을 비춰준다. 조금 늦은 시간의 가을임에도 포근한 기운을 느끼며 걸을 수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해가 저물 무렵 이곳을 찾았다면 북정마을 성곽을 넘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골목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걸어본다.

이후부터의 골목투어는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막다른 골목과의 한판 승부다. 횡으로 나있는 골목을 어느 정도 걷다 보면 어김없이 내리막과 오르막의 선택을 해야 하고, 둘 중 하나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져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어 이 골목길 투어를 한 번에 두 번 돌게 하는 묘한 능력을 발휘한다. 골목을 들어갈 때와 되돌아 나올 때의 시각적 차이 그리고 감성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게 해주는 이 골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별이 좋은 이 동네는 참 감나무가 많다. 비교적 손이 덜 가는 과수의 특성과 풍부한 일조량이 만들어 내는 가을의 골목풍경은 골목을 걷는 내내 풍성한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어느덧 몇 번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면 도로명 주소에 따라 성북로길에서 선잠로길로 넘어가는 경계에 이른다. 이 경계를 따라 성북동 대저택가와 서민들의 삶이 층층이 퇴적된 재개발3구역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곳부터가 성북3구역을 기억 속에 각인시켜주는 골목투어의 핵심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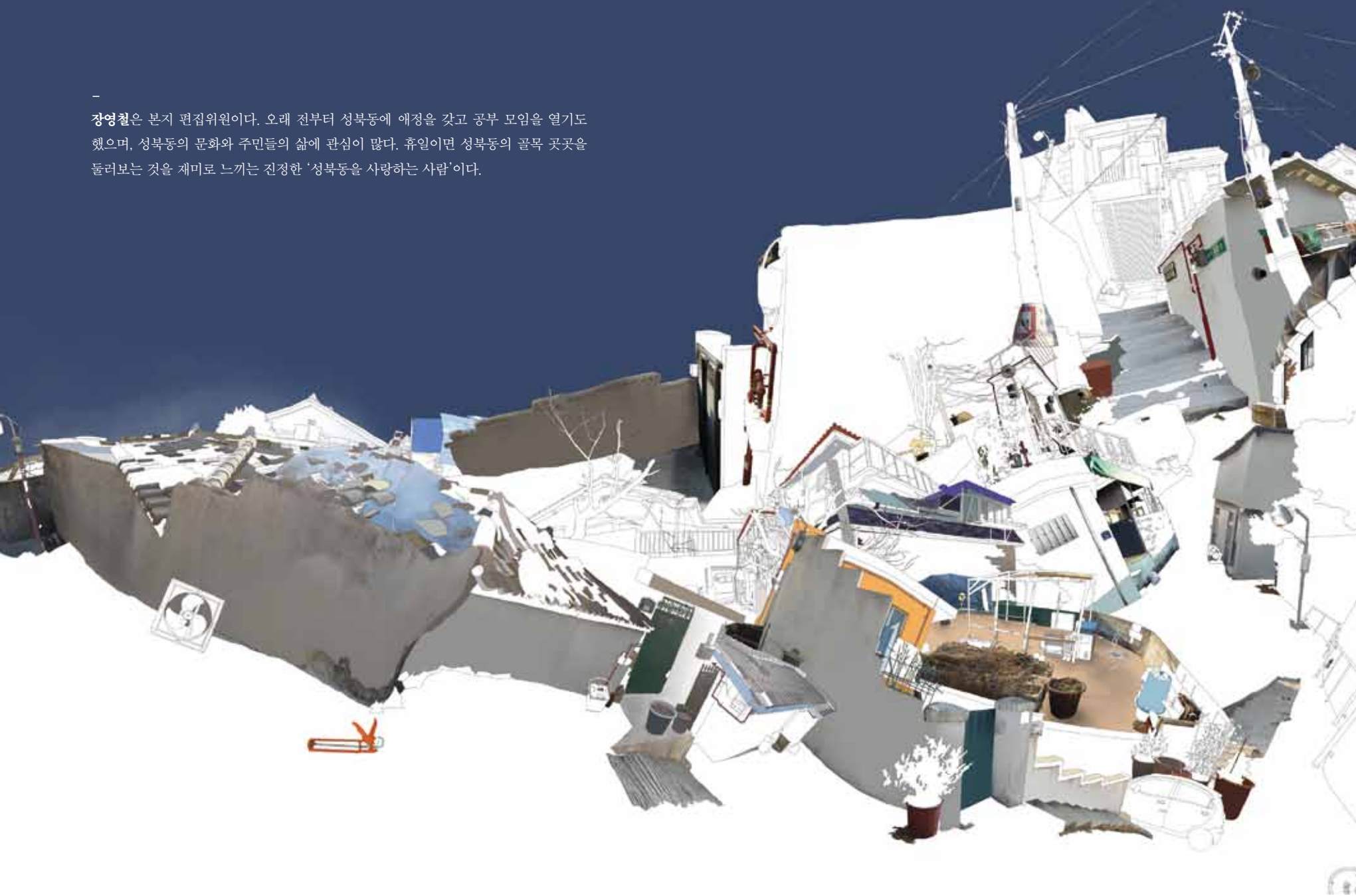
선잠로길과 성북로길이 맞닿는 경계는 작은 골목과 길게 이어진 계단 그리고 그 경계를 따라 흐르는 시간을 건너뛸 공간으로 인식되고,

골목길 어귀의 작은 평상에 걸터앉아 낮선 방문객에게 작은 미소와 편안한 인사를 건네는 동네 토박이의 담담한 인심과 소박한 일상이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묘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따라 골목투어를 마치는 방법은 발걸음을 아래로 돌려 내려오는 방법이거나 골목을 위로 위로 올라가 스카이웨이 산책로로 가는 길이었다. 선잠로길 경계를 따라 내려오는 코스는 구불구불 골목길로 어렵잡아 네댓 방향은 되어 보여 어느 길을 택할까하는 고민도 잠시 해보게 된다. 각 골목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성북동갤러리 스페이스 캔으로 내려오는 골목, 성북동을 대표하는 시인중 하나인 조지훈시인의 집터방향으로 내려오는 골목 등 어느 길을 선택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부부화가인 윤보 김기창, 우향 박래현의 운우미술관을 둘러보고 골목길 투어를 마무리해 본다. 다만 운우미술관은 어떠한 사정인지 수년 전부터 관람을 할 수 없고, 작년까지도 운우미술관 옆에 자리 잡았던 툇마루가 인상 깊었던 전통한옥이 헐리고 잡초가 무성한 터만 남아 아쉬울 뿐이다.

성북3구역은 단어만으로 알 수 있듯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부디 무조건적인 재개발로 정주민의 삶터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의 삶이 온전히 보전되면서 마을이 재생되어, 지역주민의 삶이 온전히 지켜지는 아름다운 성북동이 계속되기를 기원해 본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오늘 내가 걸은 아름다운 골목은 사라질 테고, 그 골목에 깃들여 살던 사람들의 훈훈하고 느긋한 삶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 삶의 소중한 유산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장영철은 본지 편집위원이다. 오래 전부터 성북동에 애정을 갖고 공부 모임을 열기도 했으며, 성북동의 문화와 주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다. 휴일이면 성북동의 골목 곳곳을 둘러보는 것을 재미로 느끼는 진정한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김승택 作 / 성북동, 디지털 프린트 100x150cm, 2011



인터뷰 도심에서 고향을 꿈꾸는 사람

성북동 3구역 주민 장덕수씨

소위 성북동 3구역은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를 마주보고 왼편 쪽 산동네 마을이다. 아래에서 바라보면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정겨운 곳이다. 이 지역의 상당부분은 근대화 시기의 전통적인 주택 건축 양식인 양옥집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산동네에 개발된 전형적인 비탈 마을이다. 이들 비탈 마을은 주로 3번지 일

대인데, 서울에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던 1960-70년대에 형성된 집들이 모여있다. 비탈 마을의 특징인 오르막길에 골목과 골목이 이어지고, 집과 집이 처마와 마당을 마주하고 있어, 아름답고 전망 좋은 곳이 3번지 일대다.

특히 산동네인 3번지 마을은 한양도성을 마주보며 자리 잡고 있어, 저녁 무렵 성곽에 불이 비춰지는 때는 전망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물론 산비탈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도 만만치 않다. 겨울이면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집과 담장이 오래되어 무너질 것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주민 장덕수씨를 만났다.

언제 성북동으로 이사를 오셨나요?

한 6년 쯤 되었지요. 2008년 무렵인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가 전망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주저 없이 선택한 집입니다. 내심 재개발 지역이니 투자 가치도 있겠다 싶기도 했는데요, 살아보니 재개발보다도 마을을 보존하면서 주민이 살기 편한 곳으로 재생하는 것이 오히려 집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판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북동으로 이사하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사셨는지요? 그리고 왜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나요?

전에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라는 곳은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집은 아니잖아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자신만 혹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구조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강해요. 더구나 아이들이 자라다보니 아파트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아래층에서 항의를 하기 일

쭉라서, 늘 아이들에게 발뒤꿈치를 들고 걸으라고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집에서 마음껏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더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만 아토피에 걸리고 말았어요. 공동주택이 환경 질화에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또 제가 장손이라서 제사도 많은데, 손님이 올 때마다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지요. 지금 사는 곳은 이웃들과 열려있는 주택 구조이거든요. 단독 주택 밀집지역이 다 그렇듯이 말입니다. 내 집 마당에서 이웃집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아무리 뛰어놀아도 항의를 받을 일이 없고, 마음 편하게 사는 공간을 비로소 갖게 된 것이지요. 이사를 하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반려동물도 마음껏 기를 수 있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실제로 아이들 아토피도 완치가 되었지요. 저에게는 성북동 지금 사는 집이 행복을 가져다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동네라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왜 없겠어요. 비탈길을 오르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먼 것도 불편하지요. 또 우리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서 이동 자체가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낡은 집에, 좁은 골목이 불편이라면 불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불편들을 감수하고도 얻는 편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단독 주택이거든요. 아파트에서 가졌던 이웃과의 문제가 이곳에는 전혀 없어요. 이웃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런 포근함을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죠. 더구나 큰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소음이 전혀 없어요.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요. 겨울에는 좀 춥지만 여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한 곳이기도 해요. 아

래 동네와 우리 동네는 약 2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산 위라 바람도 잘 불어 여름에는 별장에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시골 고향에 가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저는 아마도 소음이 없이 자연의 소리만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마을이 바로 그런 곳이지요. 그러니 고향 같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파트보다는 삶의 질이 훨씬 좋은 곳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지요. 아파트는 삶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날마다 목고 일터로 나가기 위한, 마치 숙박시설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지요. 그러나 단독 주택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고 숨 쉬고 행복해지는 공간이지요. 이제 아파트는 삶의 공간으로서 효용성이 끝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을 생각하면 단독주택이 최선이지요. 그래서 아파트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성북 3구역 재개발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아무리 아파트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도 여전히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재개발 지역에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웃이 함께 오순도순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원래 살던 이웃들이 많이 떠났어요. 떠나지 않고 사는 분들도 집을 팔고 자기 집에서 세를 사는 경우도 많구요. 우리 동네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어르신들이 집을 팔아 노후를 보내야 하는 문제들이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첨예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더 많을 정도예요. 친척보다도 더 가까웠던 할머니가 이사를 가버리고, 늘 얼굴을 대하던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리는 이 비정현실이 다 재개발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성북동은 이름값이 높은 동네 중의 하나지요. 그 이름값을 되찾는 것이 어쩌면 대안 아닐까요? 온갖 문화재가 밀집해있는 동네이니, 그 문화재를 주민들이 삶과 연계시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어르신들이 살아온 성북동의 이야기를 성북동을 찾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해 드리는 방법 같은 것 말이에요. 또 어르신들이 사시기 힘든 동네 구조를 개선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골목과 밀집한 집들을 살리면서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을 확보라고, 담을 손질하는 등 시설 투자도 지원되어야 할 거예요. 기반 시설은 관에서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를 꾸려 마을을 가꾸는 의식을 키워간다면, 재개발보다는 훨씬 집의 가치를 높이고 외국인들도 찾아오는 마을,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마을이 되겠지요.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 재생 사업이 대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 동네 올라가는 길의 계단이 참 불편해요. 그저 관에서 일반적인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의 계단은 일반 계단보다 높이를 더 낮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탁상 행정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주민의 눈에 맞춘 배려가 있어야 할 거예요. 주민과 협의를 통해 메인 도로를 확보하고, 리모델링 조건도 완화해주어야 해요. 물론 마을을 가꾸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이 모인 주민 협의체가 생겨나고, 관이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요.

우리 마을은 북한산 둘레길로도 연결되고, 스카이웨이의 산책길을 통해 종로구의 팔각정으로도 이어져요. 문화재와 산책길이 조화를 이루고, 골목과 산이 이어진 마을을 살려낸다면 마을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난 마을과 관련된 여러 일들을 통해 노후의 생계 수단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노령화와 도시 공동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마을 같은 산비탈 동네야말로 생활과 문화, 경제 활동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성북동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요? 성북동의 미래를 꿈꿔보신다면.

저는 출퇴근용으로 쓰던 차를 얼마 전에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직장까지 집에서 걸어 출퇴근을 합니다. 와룡공원길을 넘어 걸어가는 길의 경치가 아주 그만입니다. 사시사철 바라보는 성북동의 풍경이 아마 말 그대로 이상향 같이 느껴져요.

성북동천의 복개를 걷어내고, 안 되면 실개천이라도 흐르게 복원을 하고, 그 개천 위 언덕의 집들이 노을에 빛나는 아름다운 곳이 성북동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문화와 역사와 주민의 삶이 어우러져있는 곳, 골목과 집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으면서도 정겨운 곳, 그곳이 성북동이 아닐까요? 도심 속의 시골 같은 곳, 언제나 고향 같은 마을이 성북동이기를 꿈꿔봅니다.

선생님의 바람대로 성북동이 재개발의 광풍을 이겨내고,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문화 마을이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및 정리/편집부) 

성북동 사람들

서순정

조금 오래된 드라마를 보면 비싸 보이는 소파에 앉아 다이얼 돌리는 고급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네~ 성북동입니다.” 라는 말은 하는 사모님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다. 내게 성북동은 그렇게 드라마에서 부유층이 사는 동네라는 것이 첫 인상이었다.

그런 성북동 주변으로 이사 오게 되고 ‘소셜다이닝 집밥모임’에서 알게 된 성북동 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접하고, 나는 혼자서 돌아보던 골목을 ‘함께’ 다니게 되었다. 혼자서 마주하는 골목, 골목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런 골목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분은 나누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을 골목을 함께 다니면서 만나게 된 인연들을 통해서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라는 마을 잡지를 알게 되었다. 마을잡지라, 아주 생소하였다. 마을잡지를 발간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을잡지의 창간은 2013년 11월 20일이었다. 창간호를 받아 들고, 찬찬히 훑어 보았다. 성북동의 유래와 성북동을 오래 지켜온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발관이야기, 성북동의 예술가이야기들 그리고 동네사람들의 창작교실 작품 시가 실려있었다. 스쳐 지나가며 만나던

성북동의 모습을 이렇게 책으로 다시 만나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조금이나마 실감하게 되었다. 혼자 그냥 그냥 다니던 성북동은 큰도로 주변을 또는 블로그 추천 맛집을 돌아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구석 구석 흔히 보이지 않던 간판들과 골목길을 만나게 되었다.

도로 주변은 누가 보아도 지금의 현대 서울의 모습이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굽어 골목으로 들어서면 언제적 인지 모를 성북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다. 현대서울의 모습과 과거 어느 즈음에 정지된 듯한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이 공존하는 성북동. 빛 바래진 담벼락과 20여 년을 무색하게 지켜낸 간판들. 성북동을 굽이 돌아 앉은 성곽. 저 멀리 북한산과 만화 같은 골목 마을인 북정 마을. 그리고 이런 성북동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잡지이다. 성북동 구석구석 소소한 그네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잡지를 보고 있으면 그 구석구석을 찾아가고 싶고,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창간호를 만나고 한달 남짓 만에 2호를 만났지만 창간호 발간 이후 1년이 조금 안된 7월 31일 발행이 되었다. 창간호에 비해 잡지 2호는 조금 더 많은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거울이 빛을 반사해내어 글을 비춰내는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라든가 쉬이 알지 못하는 동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빵집이야기, 법정스님이 계신 던 길상사와 만해 한용운의 고즈넉한 심우장이 있게 된 배경들, 그리고 훈민정음을 보관하게 된 간송미술관의 뒷 이야기는 쉽게 접하게끔 만화로 소개되어 있다. 일단 더 두꺼워 졌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였다.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성북동을 다시 보게 되었고 더 찬찬히 마을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조용한 마을 성북동에는 최근 들어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창간호에 어느 글을 보면서 그들 속에 한명인 나를 마주하면서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마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 성북동은 웬지 현대적인 서울이었다. 또 조선시대 사소문 바로 옆에 위치하였고 청와대와 대사관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저택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곳이 성북동이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골목골목 작은집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그 오랜 기간을 간직해 온 그 곳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3호, 4호, 5호...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잡지가 기다려진다. 

* 이 글은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뉴스레터 '마중'에 실린 것을 재수록했다.

-
서순정은 '성북동천'이 주최한 마을 탐방에 참여하면서 '성북동천'과 인연을 맺었다. 경북 영주 아가씨로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이다. 이번 호 리뷰를 쓴 것을 계기로 다음호부터 편집위원으로 잡지 편집에 참여하기로 했다.





‘성북동천’ 이야기 하나

성북동, 시인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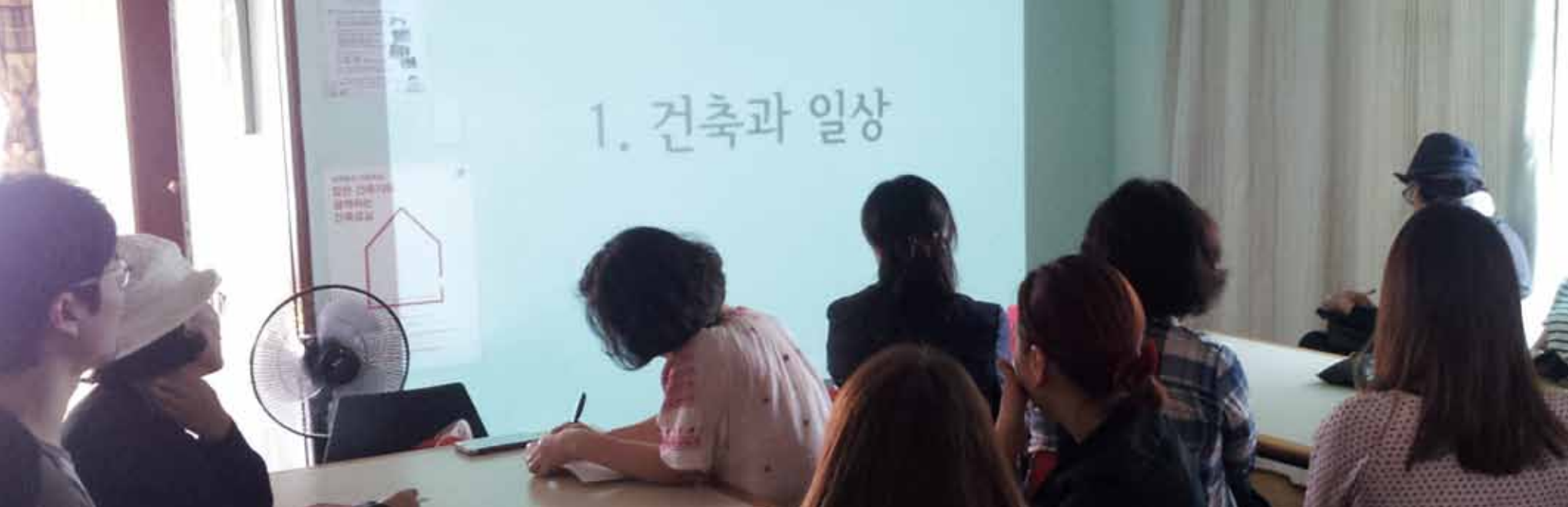
매달 한 번씩 성북동은 시인과 만나고 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시인과의 만남은 이제 올 해 한 번 더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만남은 9월 19일, 카페 ‘날아라 코끼리’에서 있었다. 초대 시인은 신현수씨였고, 가수 정밀아씨가 함께 했다. 카페를 가득 메운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현수 시인의 시 낭송을 듣고, 함께 시를 읽으며 삶과 시에 대한 이야기로 여름의 끝을 수놓았다.

두 번째 만남은 10월 셋째 주 금요일인 17일이었으며 장소는 카페 ‘느림보 거북이’였다. 초대시인은 문동만씨, 초대 가수는 역시 정밀아씨였다. 문동만 시인의 삶의 시를 함께 낭송하고 살아온 이야기, 살아

갈 이야기를 들었으며, 가수 정밀아씨의 서정적인 노래가 성북동의 가을을 더 곱게 물들였다.

올 해 마지막 만남은 11월 21일이다. 장소는 전통 찻집 ‘산수다향’. 초대 시인은 김진경씨다. 김진경 시인은 어린이 문학 작가이고, 교육 평론가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널리 번역된 판타지 동화 <고양이 학교>의 저자이기도 한 김진경 시인의 시와, 정밀아 가수의 노래가 어우러지는 행복한 자리가 될 것이다. 시인과의 만남 행사는 세 번째를 끝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내년 봄에 다시 속개될 이 행사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밤 7시부터 성북동 곳곳에서 열려 ‘시의 마을 성북동’을 더 빛나게 해 줄 것이다.



‘성북동천’ 이야기 들

젊은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 교실

건축교실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성인반과 어린이반 두 강좌로 나눠 진행되는 건축교실은 젊은 건축가 이준호씨(건축 그룹 (tam)대표)가 진행하고 맡고 있다.

성인반은 총 10강, 어린이반은 총 8강으로, 9월부터 11월 15일까지 성아들 협동조합 강의실에서 진행 중이다.

성인반은 ‘일상 속 건축을 통해 공간이 가진 의미를 돌아보고, 장소는 기억과 공간의 집합체임을 이해하며,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의미와 살고 싶은 공간을 생각해 보자’는 목표로 총 19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어린이반은 ‘우리 주변의 건축물을 통해 건축과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건축이 우리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 알아보고, 시각, 촉각, 공간감 등 건축적 감각 및 사고를 통해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총 11명의 어린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성북동천’은 내년에도 이와 같은 강좌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성북동 주민 및 성북동에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문화적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북동천’ 이야기 셋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십니다

성북동 마을 공동체 ‘성북동천’은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성북동천’은 마을 잡지 간행과 마을 탐방, 마을 학교 등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역 주민, 지역 내 생활권자, 혹은 성북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하실 곳

이메일. seongbukdong.town@gmail.com

전화. 010-2366-6238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법인·단체,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컨소시엄/네트워크형 연대체로,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발간, 마을탐방 진행, 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주민, 17717, 스페이스오뉴월, 동네공간,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희망제작소가 함께 합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편집위원회

이메일 | seongbukdong.town@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 facebook.com/seongbukdong.town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사업명 : 성북동 좋아서 사는 마을 만들기

세부사업명 : 성북동 마을학교, 성북동 마을탐방,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잡지)

성북동 마을공동체 ‘성북동천’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법인·단체,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예술인들이 모여 설립한 컨소시엄/네트워크형 연대체로, 성북동에서 마을잡지 발간, 마을탐방 진행, 교육·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간 연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동 주민, 17717, 스페이스오뉴월, 동네공간,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희망제작소가 함께 합니다.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3호

2014년 11월 7일 발행

편집 | 김홍식 박진하 오예주 장영철 최성수
디자인·사진 | 김선문(17717)
펴낸곳 | 성북동천

성북동천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12-6 동네공간

010. 2366. 6238

〈비매품〉